청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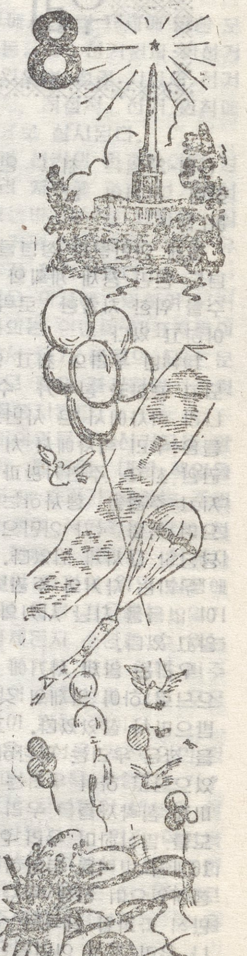
1957.8



젊은 개발자들　(송남 청년 탄광에서)

청년생활 1957. 8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우리 나라는 인민의 나라이다

김 의 철

8월 27일은 최고 인민 회의 선거의 날이다.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은 이날을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치렬한 로력 투쟁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1948년 우리의 최고 인민 회의가 창설되고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큰 사변으로 된다. 우리들은 우리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의 주권인 최고 주권기관과 중앙 정부를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독립 국가 인민으로서 국제 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다.

우리는 자기의 주권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음을 지난 시기의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제 시기에 자기의 주권이 없으므로 하여 일제의 갖은 억압과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었다. 그러나 오늘 주권을 잡은 우리는 무한히 행복하며 주권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는 무한히 강대하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말살하며 우리 인민을 정복하려고 16개국 병력을 동원하여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으며 전쟁 력사에서 류례없는 야만적 파괴와 살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우리 조선 인민들은 포화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무력 침공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다.

그러면 영웅적 우리 인민의 불굴의 힘은 어데서 생겨 났으며 우리의 행복은 누가 주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조선 로동당과 인민 주권이 주었으며 그것은 우리 인민 민주주의 제도에서 솟아 났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한 생활도,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력도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의 인민 정권과 떼여서는 생각할 수없다.

인민 정권은 해방후 로동자들에게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민들과 더불어 공장의 주인이 되게 하였으며 국가의 령도적 계급으로 되게 하였다.

또한 인민 정권은 농민들에게 땅을 주었고 녀성들을 봉건적 질곡에서 해방시켜 주었으며 청년 학생들에게는 자유롭게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광활한 배움의 길을 열어 주었다. 또한 기업가, 상인들에게는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여 주었다.

인민 정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행복한 생활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인민 정권이 있으므로 하여 우리는 원쑤들에 의하여 무참히 파괴된 빈 터에서도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었다.

전후 우리에게는 재'더미만이 남지 않았던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의 신심이 있었고 기적적인 창조의 힘이 있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하여 우리가 참혹한 현실 앞에 락망할 줄 모르는 인민으로 떨쳐 날 수 있었고 곤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의 명확한 강령으로 인민들을 무장시켰으며 창조적 로력 투쟁에로 인민들을 조직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전후 4년간에 우리 나라는 놀랄만큼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갖추고 복구 확장된 240 여 개소의 대중 기업소들이 있고 새로 만들어 놓은 80 여 개의 공장들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경공업 부문에서만 하여도 전쟁전의 8배에 달하는 면직물을 짜내게 되였다.

또한 12년 전만 하여도 빈궁과 기아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 농촌은 85%이상의 농가 호수가 협동 경리에 망라된 기아와 빈궁을 모르는 사회주의 농촌으로 전변되어 가고 있으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임금은 전후 기간에 2배로 올랐고 물가는 근 절반이나 떨어졌다.

어찌 이 뿐이랴! 우리 나라에는 전후 기간에 수 많은 주택들이 신설되였으며 전쟁전보다 더 많은 병원과 학교가 일어섰으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가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인민의 복리 증진를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삼고 있는 조선 로동당이 지도하는 공화국 정부의 인민성에서 출발한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인민 정권은 해방된 조선 인민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 자신의 손으로 수립된 정권이며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에 기초하여 각계 각층의 애국적 민주 력량을 집결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립각한 정권이다. 이것은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구성에서 볼 수 있다. 1948년에 선거된 최고 인민 회의는 로동자 120명, 농민 194명, 사무원 152명, 문화인 33명, 수공업자 7명, 상인 22명 기업가 29명, 종교인 14명 거타 1 명으로 구성되여 있는바 대의원중 녀성은 69명, 청년 (20세-30세) 은 73명이다. 이것은 우리의 인민 정권이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하여 광범한 각계 각층 인민들의 대표로 구성되였으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기초를 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것을말하여 준다.

우리의 정권이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거 제도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선거 제도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실시하는 선거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만 18세에 달한 모든 공민들에게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권 기관의 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실시된다.

우리 정권 기관 선거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해방후 여러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명백히 표현되였는바 1956년 11월에 실시된 지방 주권 기관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의 99.99% 가 참가하였다.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선거된 각급 인민 회의는 인민의 대표자들의 협의제 기관으로서 국가 생활의 모든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것을 의무적으로 집행시킨다.

또한 선거된 대의원들은 선거자들 앞에서 자기 사업과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기의 활동과 자기가 일하는 주권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한다. 그리고 선거자들은 만일 대의원이 자기의 위임 실행에 불성실하여 신임을 잃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그를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바로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제도의 우월성과 그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진 인민 정권은 어떠한 사명과 기능을 수행하는가?

인민 정권은 조선 로동당이 내세운 혁명 임무 즉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수행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실현하며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이와 같은 사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 정권은 국내의 계급적 원쑤들의 반항을 진압 방지하며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리하여 조국의 자유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튼튼히 수호하며 공민의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인민 정권은 경제를 조직하며 인민을 교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즉 인민 정권은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며 인민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새로운 간부들을 양성하며 나라의 과학 문화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정권을 강화하는 것은 곧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달성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담보로 된다.

그러나 남조선 리 승만 괴뢰 정권은 이와는 판판 다르다. 그것은 자본가 지주를 위한 반 인민적 정권이다. 긴 설명이 필요없이 남조선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전부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 예속 자본가들이고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단 한사람도 없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인민의 복리를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지난 12년간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을 오직 빈궁과 기아의 생지옥 속에 몰아 넣었으며 또 몰아 넣고 있다.

최근 남조선은 놈들이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에 의하여도 총 농가 호수 225만 호 중 그 절반이 기아 선상에서 헤매는 절량 농가를 빚어냈다.

《동아 일보》는 오늘의 남조선의 참혹한 현상을 《800년래의 물가고, 4천년래의 민생고》라고 보도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북진 전쟁》을 떠벌이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값싼 대포밥으로 강제 징소집 당하고 있다.

한편 청년 학생들은 학원의 모리화와 무거운 부담으로 인하여 배움의 길을 박탈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에게는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는 미국 고용병들이 백주에 집단적으로 《파주》를 습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며 금품을 략탈하고도 오히려 무고한 인민들에게 죄를 전가하며 죄 없는 인민들은 학살 테로를 당하고도 말못하는 참혹한 무법 천지가 있을 따름이다.

오늘 남조선의 이와 같은 참혹한 현상은 오직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결과이다.

때문에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인 미제는 조선에서 물러가야 하며 우리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시키여 남조선 인민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여야한다.

금번 실시되는 최고 인민 회의 선거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 주권을 더욱 튼튼히 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정치적 의의를 가진다.

금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들을 선거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승리와 행복의 담보인 인민 주권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주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백방으로 제고하여 우리 혁명을 더욱 촉진 시키자!

전체 청년들은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맞이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하여 그 어느때보다 원쑤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1957년 도 인민 경제 계획을 영예롭게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애국적 증산 투쟁을 더욱 치렬히 전개하자.

인민 정권만이 우리 인민의 행복과 자유와 보다 광활한 미래를 약속한다. 금번 실시되는 선거에서 인민 정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사랑과 충직성을 표시하자.」

무지개를 타고

리 호 남

령마루에 올라 서면
내 마음 나래로 돋쳐
생활의 무지개 타며 날고 나니
령이 높아서냐, 더 높이 솟으라.

어머니 아버지 등에 업히여
이 령을 오르 내리며
내 화전민의 아들로 자랄 때
눈물과 한숨의 고개더라.

그러나 의로운 쏘베트 병사
왜놈들을 내몰아 여기 오르며,
가난을 내몰아 생의 무지개 놓으며
희망의 다리를 놓아 주더라.

그때부터 의로운 벗이 준
무지개 타고 총각으로 숙성했으니
이 령마루까지 나를 바래 주며
약속하던 처녀의 간곡한 부탁

《우리를 해방시킨 병사들 처럼
나의 꿈을 지켜 끝까지 싸우시라!》
그 부탁 저바리지 않는 용사되여
원쑤를 물리 쳤노라. 다시 돌아 왔노라.

영원히 잊지못한 사연으로 하여
내 마음에 나래로 돋쳐
날아 날게한 생활의 무지개여
령마루에 뿌리 박아 더 높이 비끼라!

굽어 보면 아름다운 조국 산천의
산발 타는 양떼, 이삭 패는 넓은 들
아! 사회주의로 꽃피는
모두가 우리 조합의 살림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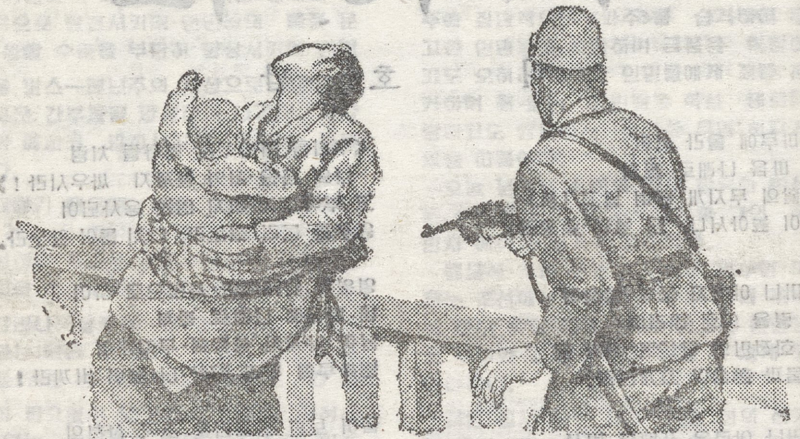
행복에 살며
영원할 평화를 이야기하는
생활의 무지개여!
나의 노래, 그대 쏘베트여!

1957.7



단편소설

생명



한 희 만

라비닌 중위가 지휘하는 쏘련 척후 땅크 구분대는 일본 《사무라이》들의 패잔병들을 추격 소멸할 전투 임무를 띠고 뒤꽁무니에 뽀얀 몬지를 일으키면서 동해 연도를 따라 길주 방면으로 내닫고 있었다. 그 선두 땅크의 철탑 우에는 타는 듯 붉은 기'발이 펄펄 휘날리고 있었다.

그 선두 땅크 안에는 라비닌 중위와 드네쁘르강 류역의 태생인 기관총사수 안드레이 이와노브, 포장 야꼬브 상사며, 장탄수 린쓰끼 그리고 또 한 명의 운전수가 타고 있었다.

팔월의 뜨거운 해'볕을 받아 끓는 가마속처럼 부글부글하던 땅크 안도 저녁켠에 잡아 들면서부터는 행결 서느러워진 것이 어지간이 기분이 좋았다.

요즘 왜놈 패잔병들은 남쪽으로 도망치면서 무고한 마을들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산 모퉁이나 길섶에 숨었다가 불시로 나타나 총질을 하기도 하여 좀체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라비닌 중위는 줄곧 눈에서 망원경을 떼지 않고 있었다. 지금 기관총수 안드레이 이와노브는 땅크의 시창을 통하여 마치 수채화와도 같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연도의 풍경들을 내다 보고 있다.

비록 저기 지평선 넘어에서는 아직도 불타는 거리에서 시꺼먼 연기가 타래지어 오르고 있고 전쟁의 총포성은 강산에 멎지 않았건만 조선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냐! 땅크의 왼손켠으로는 동해 바다가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꿈속처럼 아득히 펼쳐져 있고 그 우엔 흰 갈매기 떼들이 물'결에 깃을 차며 낮게 나르고 있다. 오른손켠에 펼쳐진 논배미 들엔 푸른 벼포기들이 굼실거리고 저쪽 수수 밭 사이사이에 엿보이는 나즈막한 초가 지붕들에는 둥굴둥굴한 박들이 데룽데룽 매달려 있다. 만일 이렇게도 아름다운 금수 강산에 왜적의 검은 그림자만 비끼지 않았던들 조선 인민의 생활은 그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왔을것이냐? 안드레이의 가슴은 새삼스럽게 저려 들었다.

《이봐 안드레이! 조선의 풍경은 정말루 시'적이란 말이야》하고 야꼬브 상사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안드레이도 두 손으로 오가리를 지어 상사의 귀에 바싹 가까이 대고 크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상사 동지! 조선에 있는 동안 세계의 명산이라는 금강산을 꼭 한번 보고 싶구만요. 더우기 조선은 산천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마음에 듭니다. 소박하고도 부지런한 그들의 일 모습을 본다거나 조선 농가의 울타리에 피여난 해바라기들을 볼 때마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산천과 그곳 사람들을 련상하군 한답니다. 더우기 조선의 아이들을 볼 때엔 나는 노상 내 딸년 나따샤의 생각을 하군 합지요.》 그리고는 웬 일인지 다음 말을 머뭇거리는 것이였다. 그럴 때엔 구레나루가 더부룩하고 눈'가에 고기의 지느레미같이 잔조름한 주름이 간 이 사람됨이 좋은 병사도 그 눈'길이 한층 사나와지는 것이였다. 그는 비록 겉 인상은 부드러워 보이나 원쑤를 무찌르는데 있어서는 마치 가시밭을 태우는 불덩어리처럼 사나운 사람이였다. 상사는 흘깃 안드레이를 쳐다 보면서 문득 간봄 백림으로 진격하던 그 어느 밤 (그 밤은 대단히 서정적인 밤이였다.) 두나이강반의 초원 우에 땅크를 세우고 그 밑에 누워서 이역의 하늘에 총총히 반짝이는 별들을 헤이면서 이 로병사와 고향 이야기들을 나누던 일을 회상하였다.

《…상사 동지! 이와 같은 밤엔 난 도제 집에 백혀 있지 못했습지요. 안해와 어린 딸을 데리구 즐겨 드네쁘르강'가를 산보하군 했지요. 내가 손풍금으로 <드네쁘르강의 노래>를 타면 안해와 딸애는 물매미같이 고운 목청으로 그걸 따라 불렀답니다. 그리군 모두 드네쁘르 강물에 들어 서서 목욕을 했습지요. 그러노라면 하루 일의 피곤도 스르르 풀리는 것이였습니다.》

안드레이는 모자를 가리우고 담배를 몇 모금 연거퍼 빽빽 빨더니 다시 말을 이었었다.

《그런데 불쌍하게두 지금은 황천객이 되였습니다. 나따샤 고년은 정말루 제 딸자랑이 아니라 물찬 제비처럼 이뻤습지요. 곱슬곱슬한 금발 머리에 주옥처럼 빛나는 파란 눈'동자며 날씬한 코가 말입니다. 내가 전선에로 떠나는 밤 고년은 내 목에 매달려 아양을 떠는게 아니겠습니까? <아빠 저 하늘에 별만큼 많은 원쑤들을 족쳐 대고 저만큼 많은 훈장을 달고 돌아 오세요. 네>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젠 상사 동지! 나에게는 오직 저 별보다 몇 갑절 더 많은 원쑤놈들을 족쳐댈 과업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땅크의 바퀴를 손끝으로 톡탁톡탁 뚜다리는 것이였다.

어느덧 땅크는 철갑 모자 모양으로 생긴 H산 기슭을 돌아 맑은 강물이 사품을 치며 동해로 흘러드는 K강반에 이르렀다. 강 우에는 좁다란 세멘트 다리가 놓여 있었다. 이때 라비닌 중위는 다리 우에서 갈팡질팡하는 패잔병 무리들을 발견하였다. 놈들은 갑자기 산모퉁이로부터 나타난 이 쏘련 땅크들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땅크병들은 놈들 속에서 웬 조선 녀자가 끌려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놈이 그 녀자의 팔 소매를 끌어 다니고 다른 한 놈이 총뿌리로 등을 쿡쿡 찌르는 것이였다. 그 녀자는 머리에 커다란 보따리를 이였고 한 쪽 옆구리엔 아이를 둘러차고 있었다. 아마도 길을 가다가 불시로 패잔병놈들에게 붙잡혀 끌려 가는 모양이였다. 그 무렵에는 왜놈 패잔병들이 길 가는 녀자들께 이렇게 지랄 하거나 행인들의 보따리를 터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안드레이는 무심결에 기관총 가목을 틀어 쥐였다. 중위가 그를 제지시키면서 말했다.

《자칫하다간 저 조선 녀자를 다칠 수 있소. 그러지말고 놈들을 그냥 생포합시다. 땅크를 전속력으로 모시오.》

그리하여 비좁은 다리 우에서 땅크와 패잔병들의 거리는 숨 가쁜 긴장 속에 바싹바싹 죄여 들었다. 그렇게 되자 왜놈의 장교 한 놈이 그 녀자에게로 돌따 서더니 그놈이 틀어 쥔 권총 끝에서 불꽃이 번쩍하였다. 녀자는 그 자리에 쓰러

지고 놈들은 그 녀자의 시체를 뛰어 넘으면서 대안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안드레이는 놈들의 뒤'통수에 세찬 불'줄기를 박았다. 몇 놈은 다리 우에 쓰러지고 그 나머지 놈들은 거북이 등처럼 휘여붙한 몇은켠 야산의 잔솔밭 속으로 허겁 지겁 뛰여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그곳에 숨어서 사격하기 시작하였다. 안드레이의 두 눈엔 불이 활활 일었다. 그는 치미는 분노로 하여 숨을 씩씩거렸다. 물론 이런 일을 한 두 번만 보는 것은 아니다. 모쓰크바 근방으로부터 백림에 이르는 그 머나먼 싸움의 로정들에서, 그리고 이곳 조선에 상륙한 이후만 하더라도 그 얼마나 많이 파시스트놈들과 일본 사무라이놈의 간악한 행동을 보았었던가. 놈들이 안민들을 탄알 방패로 앞세우고 아군 진지를 공격하는 것도 몇 차례나 겪었고 와르샤와 근교에서는 군수용으로 생 사람의 기름을 짠다는 살인 공장도 직접 보았었다. 청진 시가지에서는 일본 군대들이 조선 부인을 죽이고 그 녀자의 입에서 세개의 금'이를 돌로 쪼아 뽑은 시체도 보았었다. 아! 나의 안해와 어린 딸 역시 이렇게 되여 놈들의 손에 학살되였었다. 안드레이는 주먹으로 가슴을 툭툭치면서 그 녀자의 시체 있는 곳을 내다 보았다. 머리에 이였던 보따리는 흩어져서 바가지며 질그릇들이 때굴때굴 구을고 있었으나 조고마한 처녀애만은 품에 꼭 껴안은채 쓰러져 있었다. 그애는 엄마의 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울고 있었다.

《개자식들! 이건 분명 놈들의 꾀요. 놈들 역시 우리 쏘베트 땅크병들이 결코 인민들의 시체를 깔고 넘지 못하리란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녀자를 우리 앞에 쓰러뜨려 놓은거요. 에익 할 수 없지! 땅크를 멈추시요.》

그리하여 땅크는 그 녀자의 시체를 조간히 두고 박은 듯이 다리 우에 멈춰 섰다. 뒤따르던 땅크들도 줄느런히 그 뒤에 멈춰 섰다. 그러자 놈들의 진지에서는 자기들의 꾀가 성공한 것을 무척 기뻐라도 하듯 더욱 기승을 부리며 기관총탄과 소총탄들을 몰박아 대는 것이였다. 그래서 바싹 겁이난 곱슬머리 처녀애는 검붉은 반점이 자꾸만 넓어져 가는 어미의 젖가슴 밑으로 파고 들면서 더욱 자지러지게 울어 댔다. 이 때 안드레이의 량미간이 무섭게 쪼푸려 지더니 라비닌 중위를 돌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였다.

《중위 동지! 저 애를 들어다 땅크 속에 태우고 갑시다. 허락할 수 있습니까》

《좋소! 그렇게 하시오.》라비닌은 목을 끄덕이고 야꼬브 상사에게 대응사격을 명령했다. 그러자 대안엔 가둥같은 불'길이 펑긋펑긋 일고 감자지색 연기며 동강이난 다박솔들이 공중 높이 솟구쳐 올랐다. 안드레이는 룩크 문을 열고 휙 밖으로 뛰쳐 나갔다. 그리고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 재빨리 포복 전진을 시작했다. 왜놈들은



쏘베트 병사들이 그 녀자에게로 접근하는 것을 알아 차리자 안드레이를 조격하기 시작했다. 탄환은 따르륵 따르륵 아치러운 소리를 지르면서 그의 전후, 좌우에 백히기도 하고 귀 밑을 스치기도 하였다. 이것을 보는 라비닌 중위의 두 손엔 땀이 질편하게 고였다. 실상 이런 때는 몸소 그 위험한 일을 당하는 사람보다 그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 갑절 더 아슬아슬한 법이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조금도 덤비지 않고 그 녀자가 누워 있는 곳까지 기여 갔다. 비록 그 녀자는 눈을 감고 있으나 강렬한 모성애의 감정으로서인지 어린애를 꼭 껴안은 것이 도제 숨이 졌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믿기가 싫었다. 그래서 안드레이는 그 녀자의 가슴에 귀를 대여 보았다. 아무런 심장의 고동도 느끼지 못하자 안드레이의 두 눈에선 눈물(그가 세상에 태여난 후 오직 두번째 흘리는)이 쭈룩룩 흘러 내렸다.

가리마를 복판에 타고, 정갈하게 빗어 넘긴 그 녀자의 머리칼, 수수한 광목 저고리에 색 낡은 검정 치마…

(아! 불쌍한 조선의 녀인이여! 어떻든 이 어린애만은 내게 맽기슈…설마 내가 적탄에 맞아 이 다리우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귀중한 생명덩이만은 꼭 구해 드리리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녀자의 팔에서 간신히 어린애를 떼낸 후 그의 시체를 땅크에 치우지 않도록 다리 가장자리에 바싹 끌어다 놓고는 처녀애를 안고 땅크 쪽으로 되돌아 기기 시작하였다. 그애는 옆구리에서 계속 자지러지게 울었다. 아마도 엄마의 품을 떠나기가 싫은 모양이였다.

《울지 마라! 애야! 겁낼건 없다. 난 절대루 나쁜 사람이 아니란다. 지금은 네가 나를 원쑤인지 은인인지 몰라본다만 앞으로야 알날이 있겠지… 하긴 그까짓건 몰라도 괜찮아!》

그가 소고삐 한 기장쯤 기여 왔을 때 탄환은 또다시 우박처럼 두리에 백혔다. 그는 날쌔게 어린애를 가슴에 돌려 안고 그 우에 제몸을 덮었다. 그 순간 땅크병들은 안드레이가 몸을 비비트는 것을 보았다. 탄환이 옆구리를 관통한 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태연한 몸짓으로 아이를 더욱 자기 품 속에 감아 안는 것이였다. (개자식들! 내 몸을 벌리 둥지처럼 만들어 보라지! 그래도 이 애만은 떨어트리지 않을 것이다.)

탄환이 좀 뜸 해지자 안드레이는 재차 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역시 얼마를 더 기지 못하고 그만 정신 잃고 말았다. 이것을 본 야꼬브 상사가 뛰쳐 나가랴 하였으나 우박치는 탄환으로 하여 도시 머리를 내밀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패잔병놈들에게 무서운 욕사발을 퍼부으면서 또 한 방의 포를 갈겨댔다. 이때 《쾅》하는 소리를 듣고 안드레이는 다시 머리를 들었다.

재 정신을 차린 안드레이는 귀 밑을 흘러가는 귀 익은 강물 소리를 들었다. 《아! 드네쁘르강》하고 그는 입속으로 쑹얼거렸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드네쁘르 강'가에 노래 부르며 산보하던 정겨운 날 밤의 안해와 나따샤의 모습이 너무도 쟁쟁하게 되살아 올랐으며 그와 엇갈려서 그들의 비통한 최후의 모습들— 즉 강'둑의 떡갈 나무에 목을 매 달렸다는 안해의 복쑤를 부탁하는 듯한 얼굴 표정이며 그 곁에서 발을 배둥대며 울다가 파시스트 놈들의 총창에 가날픈 심장을 찔리웠다는 딸애의 애처로운 얼굴이 선명하게 떠 올랐다. 《개자식들!》 안드레이는 이'발을 빠지직 갈면서 눈을 버쩍 더 크게 떴다. 그리곤 자기가 안은 어린애를 물끄럼히 굽어 보았다. (비록 얼굴은 다르지만 나따샤의 그 파아란 눈'동자와 이 이름 모를 조선 아기의 눈'동자가 그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너는 조선에서 만난 나의 나따샤다. 너의 앞날이 부디 복되기를 바란다. 장차 숲속의 가수가 되려느냐! 생활의 시인이 되려느냐! 아니면 새 조선의 기둥을 깍아 세우는 석공으로 되려느냐! 아무튼 요 귀염둥아!



잘 자라라!
그런데 저기 땅크 있는 곳은 불과 몇 발작 되지 않으련만 왜 저다지도 멀어 뵐까?)그 때 안드레이는 문득 그 땅크의 철탑 우에서 펄펄 손 저어 부르는듯 한 붉은 기'발을 보았다. 순간 그에게는 모든 병사들이 그 기'발을 볼 때마다 항상 그러 하듯이 새 힘이 솟아 올랐다. (아! 기'발 기'발, 나에게 삶을 주었고 나를 강철의 전사로 키워 준 혁명의 기'발, 조국의 기'발, 해방자의 기'발, 그렇다 나는 죽어도 저 기'발 밑에까지 기여 가서 죽으리라! 항차 내 품안엔 귀중한 생명이 있다. 적탄이야 몰박으로 쏟아지라지! 원 네 따위 놈들이 나를 죽이려구 흥 어림도 없다.) 그래서 안드레이는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본 땅크안의 전우들은 환성을 올렸다. 그의 부상 당한 옆구리와 세멘 바닥을 글어 당기는 열 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줄줄이 흘러 다리 우에 또렷 또렷한 손자국과 한 줄기의 붉은 선을 긋고 있었다. 그것은 때마침 비낀 저녁 노을을 받아 불타는 듯이 보였다.

땅크를 더욱 가까이 바싹 죄이고 탄우를 무릅쓰면서 야꼬브 상사가 안드레이를 땅크 안에 부추켜 들였다. 전우들이 그의 상처에 붕대를 감기 시작하자 그는 눈을 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동무들! 난 괜찮소. 그 그런데 어린애는 어찌 되였소. 혹시 상하지나…》

동무들이 그 애는 아무데도 상한 곳이 없다고 아르켜 주자 안드레이의 구레나루진 얼굴 전면엔 가장 깨끗하고도 만족한 미소가 함빡 피여 오르는 것이였다.

야꼬브 상사가 그 애를 팔에 안고 조그만한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 주었다. 그 애는 낯선 사람들을 두리두리 살피드니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였다. 그러자 랴비닌 중위가 흘레브에 사탕을 발라 주었다. 그런즉 어린애는 울음을 그치고 그것을 송곳같은 이로 오물오물 씹는 것이였다. 모두들 그것을 보고 껄껄껄 웃었다.

앞에 《방해물》이 없어지자 땅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장막같은 땅검은 점점 진하게 누리에 들어차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땅크병 용사들은 무자비하게 거북이 등의 패잔병들을 추격하면서 그 넘어 마을을 해방시켰다. 손에 손에 초롱과 홰'불들을 추켜든 마을 사람들이 길 량옆에서 해방의 군대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있었다. 땅크병들은 처녀애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중위는 자기에게서 제일 가까이 서 있는 나 많은 할머니에게 그 애를 맽겼다. 어인 영문을 모르는 할머니는 벙벙해 섰기만 했다. 서로 말을 통할 수 없는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래서 랴비닌 중위는 땅크의 룩크문을 제끼고 그 속에 누워 있는 안드레이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제사 얼푸렴 하게나마 이 사연을 짐작한 마을 사람들은 서로 겨끔 내기로 쏘련 병사들에게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중 한 늙은이는 중위의 손을 잡고 저 사람의 성씨는 무어며 이름은 무엇인가고 자꾸만 묻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 말을 알아 들을리 만무한 랴비닌 중위는 이때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땅크 우에 펄럭이는 기'발을 가리키며 무엇인가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발을 쳐다보았다. 그 기폭에는 마치와 낫과 또 하나의 커다란 별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필경 저 기'발이 자기네들처럼 마치와 낫을 들고 일하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는 기'발이라고 직감했으며 저 별빛은 이제부터 자기들의 앞길을 더욱 밝혀 주리라 믿었다. 아마 지금 쏘련 군관이 그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는지 모르지, 그리고 저 기'발밑에서 싸우는 쏘련 사람들은 모두가 저 부상병처럼 기특한 사람들일께야…

중위가 구령을 치자 땅크병들은 제자리에 들어가 앉았고 땅크는 다시 남쪽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잠시 후엔 그 붉은 기'발도 땅크도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린 아기의 두리에 몰켜 서서 의로운 병사들을 배웅하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그 기'발이 계속 펄펄펄 나붓기는 것이였다.

1957년 7월

—신간 소개—

민청 초급 학습반용 참고 자료(1) 국판 142페지 값 40 원

이 책은 새 학습 년도부터 민청 초급 학습반에서 취급될 학습 참고 자료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1.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연 부원
2. 우리 인민의 찬란한 문화 유산과 영광스러운 애국 전통
3. 우리 나라는 인민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 청년 동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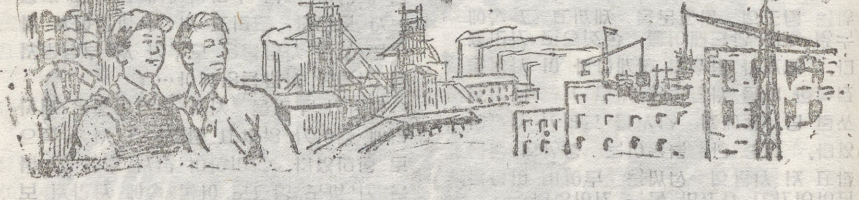
1. 민청은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조직되였으며 지도된다.
2. 민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길
3. 민청의 임무는 무엇인가, 민청은 어떻게 구성되였는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은 18시간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장을 각각 6시간 정도씩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주 청년 동맹》은 14시간 분이다.

이 책은 8월 하순에 각 시, 군 국영 서점들에서 판매될 것이다.

불멸의 은혜,, 영원한 친선



조 령 출

해방의 환희!

그것은 식민지 예속의 고통과 비분을 체험한 민족에 있어 더욱 절절히 느껴지는 감정이다.

자유! 이처럼 좋은 말이 또 있을 것인가?

실로 내 얼마나 자유란 말을 사랑해 왔던가.

그것은 해방의 날을 맞이한 며칠 후 일이였다.

서울 거리는 자유를 마음껏 노래하는 사람들의 물'결로 가득차 있었다.

조선 사람의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 그것은 참으로 그립던 것이였다.

조선의 자유와 독립과 혁명을 위하여 싸우다 일제의 《치안 유지법》이란 악법에 걸려 감옥에 갇쳐 있던 애국 청년들이 해방되여 사람들 물'결의 선두에 서 있었다.

청년 학생들의 대렬이 사람들의 물'결을 헤치며 행진하였다.

나의 눈'시울은 뜨거워졌다.

일제의 노예 교육을 반대한 그 애국적 기상을 계승한 이 학생들이 오늘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당당히 행진한다는 이것,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나의 옆에 서 있는 한 백발 로인은 실로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옷소매를 들어 눈물을 씻고 있었다.

《이저는 우리의 세상이 왔소.》

이 심정으로 흥분된 우리의 가슴에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다.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유와 행복을 준 그 은혜로운 병사들을 맞이 한다는 것이다.

《쏘련 군대가 온다.》

《쏘련 군대가 온다.》

사람들은 붉은 기'발을 들고 서울역으로 몰려 나갔다. 모든 사람들은 북쪽에서 해방의 은인들을 실은 기차가 달려 올 것을 기다렸다.

하루 또 하루!

허나 우리는 쏘련 군대를 만나지

못했다.

이보다 더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겠는가.

우리는 쏘련기를 높은 건물 우에 띄워 놓고 해방자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에는 얼마후 미국 군대가 진주해 왔다.

일부 사람들은 《련합군》이 조선을 해방시켜 준 것이니 미군도 환영하여야 한다고 기'발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나와 나의 친근한 벗들, 또 많은 사람들 가슴엔 석연치 못한 감정이 있었다.

미군이 진정코 조선 인민의 자유와 주권을 존중한다면 조선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 주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조선 사람이 원치 않는 군정을 실시하면서 조선 사람의 권리를 강압하기 시작하였다.

만일 미군을 보는 그 시선이 불손할 때에는 법에 처하겠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발포하기까지 하였다. 미군을 대하는 태도에 좀 이상한 점만 있어도 감옥에 잡아 넣겠다는 것이였다. 태도란 미묘한 것이다. 구실은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조선 인민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시작함이 아니라 미제의 《위신》과 그들의 리익에서부터 시작한 때문이다.

그들의 정책은 날이 갈수록 그렇게 전개되였고 폭로되였다.

조선의 정숙한 부녀들을 릉욕하고 조선 사람을 멸시하기 시작하였다.

땅은 농민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구로 나선 매국적 지주들의 손으로 들어 갔으며 정권은 그들의 괴뢰인 리 승만 도당의 손으로 넘어 갔다. 이자들은 조선 인민의 진정한 자유를 폭압하는 새로운 파시스트로 나섰다.

애국적 인사들은 학살되기 시작했으며 인민 생활은 빈궁으로 떨어졌다.

거리엔 실업자, 반 실업자, 거지, 류랑배로 차게 되었으며 백주에 사람을 잡는 테로 분자들이 거리를 횡행하며 사기와 기만과 부화 방탕한 세기말적 기분으로 남조선 거리는 다시금 어두워졌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군이 주둔한 이 형편을 저주러히 규탄치 않을 수 없었다.

조선 인민의 세기적 숙망인 자유! 그것은 남조선에서 다시금 무참히 짓밟히게 되였다.

누가 진정으로 조선 인민의 벗이란 말인가.

나는 나의 체험으로써 대답한다.

미군이라고?

천만에!

나는 1948년 8월에 저주로운 미제 지배하에 있는 남조선을 떠나 북조선으로 왔다.

나는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새로운 현실을 보게 되였다.

조선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모든 권리는 조선 인민의 것으로 되였다.

땅은 농민의 것으로,

공장, 기업소, 체신, 철도, 은행…

상공업의 모든 큰 기관들이 전 인민적 소유로 되였다.

근로하는 조선 인민이 이 모든 것을 운영하며,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는것, 이 얼나마 영광스러운 일인가.

일제가 조선의 모든 산업을 파괴하고 쫓겨간 그 터전에서 조선 인민이 자기의 손으로 국가를 건설하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우리는 조선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의 의사로, 그 어떤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우리의 지방 주권 기관을 선거하고 최고 인민 회의를 선거했다.

이 얼마나 당당한 일인가.

우리는 우리 나라의 애국 전통과 혁명 전통을 계승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가.

우리의 이 모든 찬란한 승리를 도와준 쏘련의 바다보다 깊은 은혜를 어찌 한시인들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쏘련 군대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피를 바쳐 싸웠다.

쏘련 군대는 자기의 해방자적 임무를 마치고는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 갔다.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는 조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각하며 행동할 뿐이였다.

고상한 희생적 정신, 형제적 애정과 원조, 이 품성이야말로 쏘련의 특징적인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훌륭한 사상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도덕이다.

내가 처음 쏘련 병사를 만난 것은 3 8선을 넘어 들어선 첫 적은 마을이였다. 그는 아주 젊은 병사로 옛 친구와 같이 나를 대해 주었다. 그는 내가 류숙하고 있는 려관에까지 찾아 와서 아주 소박한 태도로 로씨야 사람들의 롱담과 유모아로써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는 내가 작가라는데 더욱 반가움을 가지고 자기의 어깨를 헤쳐 히틀러 군대에게 입은 총탄의 상처를 보이면서 그가 걸어온 전투의 경로를 간단히 말하였다.

독일 전선에서 조선 전선에까지 그는 멀고먼 전투의 길을 겪고 온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는 오직 제국주의 침략 도배를 격파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기 위한 때문이였다.

탐욕과 략탈과 인간 멸시와 자기 리익, 자기 향락의 추구 등 그러한 것은 남조선에 주둔한 제국주의 군대의 특징으로 된다.

이러한 악덕은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무장된 군대 안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주의는 이러한 악덕을 원쑤로 생각는 때문이다.

나는 평양에서 혹은 병원에서 혹은 공장이나 광산에서 쏘련의 벗들을 만났다. 그들은 생각하며 연구하며 일하는 사람들이였다.

무엇을 위하여?

오직 조선에 온 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임무란 어떤 것인가?

나는 그것을 어렵지 않게 감촉하였다.

그들은 조선의 병원이나 공장이나 광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넉넉지 못한 살림, 인재와 기술이 바른 우리 공화국의 인민 경제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로력을 바쳐 도웁기 위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숭고한 임무인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전쟁 도발로 하여 페허가 된 북반부 지역들에서 우리는 전후 복구 건설의 위업을 달성하였으며 이제 장엄한 5개년 계획에 들어 섰다.

이 위업! 여기엔 쏘련의 물질적 정신적 원조의 위대한 힘이 있다.

보라!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 복구 건설된 공장들의 우람찬 모습을!

김책 제철소, 성진 제강소, 흥남 비료 공장, 남포 제련소, 승호리 쎄멘트 공장, 수풍 발전소, 평양 방직 공장 …그리고 또 견방직 공장, 육류 꼼비나트, 통조림 공장, 그리고 또 뜨락또르 수리 공장, 염색 공장, 표백 공장들이 일어선다.

이 장엄한 현실과 전망!

이는 곧 쏘련의 물질적 및 기술적 원조로써 이루어지는 대 건설도이다.

누가 이러한 원조를 줄 것인가.

그것은 사회주의 대 가정에 속하는 형제적 나라들 사이에 오고 가는 새로운 세기적 풍속이다.

서로 잘 살기 위하여, 서로의 주권과 령토 완정을 위하여, 서로의 내정을 간섭치 않는 원칙에서 서로 뜨거운 사랑으로 원조하며 고무 격려하며 서로 튼튼한 단결을 가지며 항시적인 친선의 문화 교류를 갖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 얼마나 정의로운 일인가.

인류의 생활에 있어
국가들 간의 친선에 있어
이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가.

삶의 가치! 그것은 쏘련이 20세기에 들어서 혁명후 첫 시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위훈과 은혜는 조선 인민의 가슴에 영원히 전해질 것이며 이 땅의 인민들이 영원히 노래 불러 찬양할 것이다.

우리의 친선은 불패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인민들의 행복을 그 리념으로 하여 뭉친 때문이다.

력사는 언제나 이 편으로 승리의 기'발을 주었고 또 영원히 이 편으로 그 기'발을 줄 것이다.

로씨야의 사회주의 10월 혁명!

그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광명을 주었다.

이 태양이 이땅에 솟은지 40년의 찬란한 력사를 갖는다.

이 40주년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위훈과 은혜를 다시 한번 심장 깊이 느끼게 하며 이 광명으로 하여 밝아진 이땅의 조선 인민은 다시 한번 영광의 축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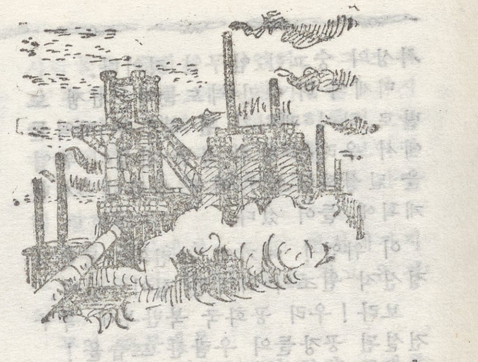
그 광명을 향하여… 그 광명의 나라 그 광명을 지켜 영웅적으로 세계 평화의 키를 잡고 나아가는 벗들에게….

어찌 우리 뿐이랴. 중국도, 파란도, 알바니아의 높은 봉우리 우에서도…

세계의 량심과 진리의 지향을 갖는 진보적 인사들이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우리 나라의 백두산과 더불어,
서해와 동해에 굽이치는 '물'결과
더불어 우리의 친선은,
우리의 친선의 힘은 영원하리라.

야금기지의 자랑찬 열두해



황해 제철소—이는 곧 새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 커다란 야장'간이며 우리 나라의 중요한 흑색 야금 공업 기지이다.

지금 이 곳에서는 각종 형강들과 특수강을 비롯한 박판, 철근, 레일, 주철관 등이 생산되여 인민의 행복을 다지는 터전들에 쉬임 없이 보내여지고 있다. 공장 구내에서는 날마다 자랑찬 창조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2년전만 하더라도 제철소는 로동자들의 암담한 감옥이였다.

이 곳에 제철소가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전인 1916년부터였다. 그 때 왜놈들은 이 고장을 《겸이포》라 불렀다. 그것은 청일《淸日》 전쟁때이 곳에 처음으로 군수 철도를 부설한 왜놈 장교 《와다나베 겐지》의 이름'자 《겐지(兼二)》에서 딴 것이였다. 이때로부터 벌써 일제의 래왕이 잦았고 놈들은 여기에 눈'독을 들여왔었다. 왜놈들이 이 곳에 공장을 설치한 것은 순전히 강철 제품 (그나마도 반제품)을 자기 나라에 실어 가기에 편리하였기 때문이였다.

이렇게 공장을 차려 놓고는 왜놈들은 로동자들을 혹심하게 부려 먹었다. 놈들은 공장과 심지어 합숙에까지 헌병들과 경찰을 배치하고 짹하면 매질이였다. 놈들에게 억울하게 매맞아 죽은 지금 내화물 직장의 직공장 장 병림 녀성의 남편 김 성록 제선공을 비롯하여 그 얼마나 많은 로동자들과 한창 또래와 청년들이 놈들의 혹사와 매질로 하여 억울하게 죽었으며 종신 병자가 되였던가?

첫 닭 울때 공사장에 나가서도 그날일할 수 있는 《지정표》를 얻지 못하여 연사흘 굶은 일이 있다는 김 기모 (지금 부 기사장) 동무의 이야기나, 축로기술을 배우려고 왜놈 몰래 자(尺)를 얻어 로벽을 재여 보다가 헌병놈에게 들켜서 몰매를 맞았다는 장 수연(지금 축로 브리가다장) 아바이의 이야기는 고사하고라도 그 얼마나 한많은 이야기가 이 공장의 구석구석에 들어 찼던 것이냐! 그 때 그들은 힘겨워 쓰러져도 병원에 못 갔고 기계에 다쳐 죽고, 팔 다리가 달아나도 돌보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위대한 쏘련 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한 8. 15 해방만이 암담한 지옥으로부터 로동자들을 해방시켰으며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었다. 이 때로부터 공장의 주인이 된 로동자들은 인민 주권의 기'발아

래 공장의 복구 건설에 궐기하여 나섰다. 왜놈들은 용광로를 비롯한 공장 기계들을 파괴하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떠 벌였다. 《제철소가 복구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려야 한다》고…

사실 적수 공권의 그들에게 있어서 애로와 곤난은 중중 첩첩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곤난한 것은 기술의 빈곤이였다. 그러나 그 어떤 장애도 해방된 인민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다.

《없는걸 만들어 낸 사람도 있는데 만든걸 알아 낼 수야 없겠는가》라고 하면서 한 기창 (로력 영웅)동무를 비롯한 수 많은 로동자들은 파괴된 용광로 속에 기여 들어가 그의 내부를 알아 내였고 김 기모, 승 신범 동무들은 대형 압연기의 복구에 발 벗고 나섰다. 해탄로 복구에 리용할 630여 종의 내화련와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곳 로동 청년들은 규석련와 직장을 새로 시설하고 해방전까지엔 일본에서만 실어오던 것을 직접 제손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공장을 찾아 온 쏘련 기술자들의 도움은 복구 건설의 휘황한 등대로 되였다. 일린 기사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기술자들은 로동자들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밤에도 쉬지 않고 그들을 성의껏 도와 주었다.

이리하여 로동자들은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기적을 낳아 놓았다. 왜놈들이 《10년 걸려야 한다》고 떠벌이던 복구 공사를 단 2년만에 더욱 웅장하고 현대적인 규모로써 복구하여 놓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용광로와 평로들에서는 또다시 쇠'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압연기에서는 각종 형강들이 뽑히여 나왔다. 공장에서는 들끓는 증산의 나날이 흘렀으며 1947년도의 인민 경제 계획과 그 후의 2개년 인민 경제 계획도 각각 훌륭히 초과 완수되였다. 따라서 로동자들의 생활도 현저히 향상되였으며 왜정 때엔 감옥이던 공장이 로동자들의 즐거운 락원으로 되였다. 그것은 실로 찬란한 우리 나라의 황금 시절이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황철은 또다시 준엄한 시련을 거쳤다. 해방후 로동자들이 피땀을 흘려 복구하여 놓은 공장은 그야말로 형적조차 찾을 길 없는 재'더미로 되고 말았다. 제철소 구내에만 하더라도 6,140여 개의 폭탄과 소이탄들이 투하되였었다. 그러나 그 어떤 가혹한 시련도 이곳 강철공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전후 복구 건설 과정에서도 여실히 표현되였다.

정전이 되자 영웅적인 공장 로동자들은 또다시 그의 복구 건설에 총궐기하였다. 그들은 황량한 재'더미우에다가 전시에 이동 매몰하였던 기계들을 파내여 다시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 결정은 로동자들에게 새로운 건설 의욕을 북돋아 주었다.

전후 복구 건설 과정에도 조선 인민의 해방자이며 가장 친근한 벗인 쏘련은 제철소의 복구 건설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10억 루불리의 무상 원조에 의한 각종 신형 기계들을 속속 보내 주었으며 계속하여 브르다끄브 기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술자들을 보내 주었다.

이와 같은 쏘련 기술자들의 친절한 도움과 로동자들의 피어린 투쟁

에 의하여 1956년 6월 6일 제1호 평로가 첫 출강을 시작하였고 그 해 9월부터는 대형 압연기와 박판 압연기가 또 다시 지심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제 2호 평로도 두배나 높은 성능을 가지는 현대적 설비로써 복구 개조되였다. 용광로, 해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들이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전후 불과 2년 동안에 강괴 생산은 전쟁전 수준에 도달하였다. 또한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1956년 7월 23일까지 전반적 지표별로 각각 초과 완수하였으며 1956년의 생산량은 1954년의 그것에 비하여 강괴 생산에 있어서는 749%, 압연 제품에 있어서는 755%라는 놀랠만한 기적을 낳아 놓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복구 건설 과정을 통하여 50 여 명의 기사와 300 여 명의 기수를 양성하여 놓았다.

로동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도 급격히 향상되였다. 미제의 야수적 맹폭에 의하여 불과 10%도 남지 못하였던 주택들이 수천 세대로 일어 섰으며 다층 아빠뜨들과 로동 회관, 영화관, 학교 등 문화 오락 시설들과 보건 위생, 편의 후생 시설들이 복구 건설되여 로동자들의 생활을 활짝 꽃피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방후 12년간 황해 제철소가 걸어 온 자랑스럽고도 벅찬 창조의 나날—그것은 실로 조선 로동당과 인민 정권의 기'발 밑에 엮어진 한폭의 아름다운 서사시이다.

그러나 로동자들은 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들은 보다 빛나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앞으로 여기에는 보다 격동적인 창조의 서사시가 엮어질 것이다.

명년 5. 1절까지에는 제 1호 용광로가 복구될 것이며 제 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제 2호 용광로가 쇠'물을 뿜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에 가서는 일제 때 최고 생산량의 1. 5배에 해당하는 40 여 만톤의 선철이 쏟아져 나온다. 평로도 현재의 7배로 확장 신설될 것이며 그의 생산고는 일제 때 최고 생산량의 4배를 넘게 된다. 봉괴 압연기도 새로 설치되고 현존 압연기는 련속 압연기로 변모함으로써 조강품과 후강품 역시 일제 때 최고 생산량의 4배를 릉가하게 될 것이다. 2백톤 혼성로가 새로 조업을 개시하며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2, 3, 4호 혼성로들과 800톤로들도 신설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제가 남겨놓은 공장 설비에서의 식민지적 기형성도 완전히 극복되고 선철 강괴, 압연재의 일관 작업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야금 공장의 면모를 갖추게 될것이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에는 선철은 160%로, 강괴는 298%로, 압연품은 407%로 각각 전전 수준을 초과할 것이다.

현존 구락부의 3—4배나 될 문화 궁전이 새로 생기며 벽돌 다층 주택들과 아빠뜨, 학교, 병원, 편의 시설들이 문화적으로 신설되여 아름다운 공장 도시를 이룰 것이다.

황철의 전망은 바로 이렇다.

지금 이 곳 로동자들은 이 자랑찬 전망에 고무되면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명년 5. 1절 전으로 용광로를 복구 조업하기 위한 치렬한 투쟁과 금년 중으로 국가 계획보다 40,000톤 강괴와 2만 7천 5백 톤의 강재를 더 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건설과 증산의 불꽃을 날리고 있다.

본 사 기 자

값높게 흘러간

열두 삼천리'벌의 12년

조 근 원

하도 넓어 열두 삼천리인가. 이 나라 지켜 슬기로웠던 선조들의 절개를 따라 십이 삼천 (十二 三千 安州邑誌에서)인가. 열두 삼천리'벌은 넓기도 하고 열두 삼천리의 생활은 슬기롭기도 하다.

봄, 가을 기러기도 쉬여서야 넘는다는 허허 벌판 열두 삼천리를 감돌아 조국의 강 청천강은 유구한 날을 흘러 왔고 흘러 간다.

봉건 왕조의 학정도, 일제의 모진 압박도 이 흐름을 막지는 못하였다.

이 흐름—자기 조국을 지켜 슬기롭고, 로력과 평화를 사랑하는 용맹하고 선량하고도 근면한 사람들의 생활의 흐름을 가로 막고 이 나라 인민들을 영원한 노예로 만들려고 망상하던 일제도 위대한 붉은 병사들의 의로운 진격 앞에 멸망하고야 말았다.

이때로부터 열두 삼천리에도 청춘 시절이 돌아 왔고 청천강도 기쁨에 흥겨운 열두 삼천리'벌 사람들의 노래를 싣고 춤추며 술렁이며 흐르기 시작했다.

그때로부터 어언 열 두해가 흘러 갔다.

이것을 잊지 말라!

열두 삼천리'벌은 눈이 모자라게 넓고 기름진 땅이였건만 지난날엔 물이 없어 곡식이 되지 않았고 설상 가상으로 왜놈들과 지주들의 등'살이 심하여 농민들은 기를 펴고 살 수 없었다.

일제때 문덕군에는 물 대는 논은 도무지 1,000 정보고 나머지 7,000 정보는 모두 건갈이 판이였는데 그나마도 97%는 지주의 소유였다. 물 대는 논 1,000 정보래야 거의가 지주의 것이였는데다가 지주와 자본가들은 하찮은 발동기로 간신히 모낼 때만 물을 퍼주고는 벼 넉단에 벼 한단을 받는 고률의 수세를 받았었다.

대니, 룡화, 립석 등 문덕 열두 삼천리의 다른 세 지구 사람들의 생활은 더 말이 아니였다. 매 고랑에 소를 열두번씩이나 몰아야 립종을 하는 건갈이 (열) 농사—그것도 좀 질구는 해에는 하 괜찮지만 가무는 해에는 립종도 못하는 농사를 하며 농민들은 썩은 보리와 뜬 황정미, 장리 쌀로 살면서 굶기를 부자'집 밥먹듯 하였고 불거지 닷새 무명 옷도 그립게 살아 왔었다.

룡림리의 리 준걸 로인은 60평생 건갈이 농사로 늙어온 이야기를 하며 말했다.

《그게 아마 해방되기 10 여 년전 일이겠쉐다. 벼가 알이 들기 전에 서리가 내려 만평 땅에서 낟알 서말도 못 거뒀는데 지주는 도조는 도조대로 물라지요, 관청놈들은 세금을 내라지요… 정 기가 막혔쉐다…》

아렇게 되면 마당질도 끝나기전부터 지주에게 가서 《추방》이라고 썩은 보리 한말 갖다 먹고 이듬해 가을에 쌀 말가

웃을 물어 줘야 했다.

더 억울한 일도 많았다. 립석리의 리 진황 농민은 한 해 녀분에 반타작으로 20관짜리 10섬을 논았었는데 타작하러 왔던 지주의 처남이 그것을 팔아 먹었다고 지주는 리 진황 농민에게 물어내라고 억지를 썼다.

억울은 하지만 땅이 떨어지는 날이면 늙은 부모와 어린 자식들 데리고 구걸을 떠나는 수 밖에 없으니 어찌하랴! 리 진황 농민은 자기 몫으로 논아 놓은 벼열섬을 갖다 주고 그날부터 장리 쌀을 먹었었다. 이렇게 억울한 나날을 살아온 이벌 사람들이니 숙망인들 얼마나 많았으며 풀지 못한 한인들 오직 많았으랴!

첫째로는 제 나라를 가지고 싶고 둘째로는 제땅을 가지고 싶고 세째로는 물! 물을 이 목마른 땅에 마음껏 대고 싶은 것이 이 벌 사람들의 숙망이였다.

《왜놈들과 지주놈들의 등'살에 제 땅마지기나 있는 사람도 사실 맘 편히 살수가 없었쉐다》

립석리의 리 섭 로인은 지난날을 이렇게 회상하였다.

한해에는 농사가 잘 되어 벼 203가마니를 냈는데 200가마니 공출이 나왔었다. 그리고서도 놈들은 15가마니를 더 내라고 로인을 잡아다 닥달질을 했다.

한번은 시집간 딸이 눈'병이 나서 왔는데 돼지 간을 먹어야 낫겠다는 것이였다. 로인은 집에서 가르던 돼지를 잡아 약에 썼다. 만일 그때 리사장놈이 고기 한근 달라는 것을 주었던들 후환은 없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로인은 딱 잡아 떼고 주지 않았다.

이일 때문에 로인은 류치장에 갇치여 모진 매를 맞고 논 천평을 팔아 벌금까지 물었다. 로인은 이 고장에서 더는 살래야 살 수 없었다. 그는 집을 헐어 달구지에 실고 숙천군 서해벌 지대에 옮겨 가서 살았었다.

굶주리고 헐벗고 천대 받고…—량심적으로 떳떳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나마 살 수조차 없던 것이 일제때의 열두 삼천리'벌이였다.

위대한 쏘련 군대의 정의로운 진격 앞에 일제가 패망하자 이 모든 것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과거사로 되였다.

어언 12년—지금은 지난날의 열두 삼천리'벌 사람들이 겪은 모진 고난의 나날이 옛'이야기로 되였다.

젊은 사람들이 《나 이팝에 닭고기!》하는 이야기를 하고는 와그르르 웃군 하는 것을 나무랠 것은 없다. 그들에게는 이밥이 상식으로 되였고 닭고기도 그리울 정도는 아니니 어찌 웃지 않겠는가!

그러나 젊은이들이여! 그 모든 애절한 이야기들이 옛말로 되였다 하여 잊질랑은 말라!

길지 않은 개화기

해방된 열두 삼천리'벌에는 기쁨과 활기가 넘치고 생활이 약동하였다. 마을마다 인민 정권이 서고 인민 위원회들은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일을 시작했다.

제 나라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천하에 꺼리낄것 없이 떳떳이 살기를 바란 열두 삼천리'벌 사람들의 첫째 가는 숙망이 풀렸으니 어찌 생활이 약동하지 않겠는가! 다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노예의 비굴함을 모르고 살 것이요, 다시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가졌다 하여 감옥에 갇치지 않을 것이다!

인민 위원회 지도 밑에 마을마다에서 농민 위원회들이 조직되여 머슴'군들과 소작인들의 손으로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토지 없는 사람, 토지 적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소작 살이, 머슴 살이를 천생 팔자로만 알아 온 사람들은 자기가 땅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한동안은 믿기조차 힘들었다. 그러나 8,000 여 정보의 땅을 분여 받은 3천 여 호의 빈농, 고농들은 제'땅을 가지고 농사 짓고 싶어하던 평생 소원이 풀린 것을 믿었고 기뻐 하였다. 소박한 이 고장 사람들은 이 기쁜 날을 자기의 둘째 생일이라고들 한다.

인민 정권은 이 벌 농민들의 마지막 번째 큰 숙망인 물을 해결하는 일에 착수

했다.

인민 정권은 원흥포에다 800마력짜리의 강력한 양수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1948년에 벌써 이 양수장은 연호 지구 5,000 여 정보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연호 지구 사람들의 살림은 한해에 당장 몰라 보게 펴워서 마을마다 새 집들을 짓고, 재봉침, 라지오, 의롱 그릇들을 사들이고, 아들 딸 잔치를 푸짐하게 차리고 하였다. 상팔리 감사 부락 마을에서는 원흥포 물을 받은 이듬 해에 총 60가호 중에서 새로 50호가 기와'집을 짓고 모두 재봉침과 라지오, 이불장, 옷장들을 사들이였는데 어찌나 그 수가 많았던지 윈 벌 사람들이 《안주 부자들의 살림이 몽땅 그 마을로 옮겨 온다》고들 말하였었다.

이렇게 이 세 지구 농민들의 생활도 훨씬 펴우기 시작했었다.

인민 정권은 이 지구 농민들의 물에 대한 갈망도 풀어 줄 거대한 설계를 꾸미고 있었다.

항상 인민들의 생활을 깊이 념려하고 계시는 김 일성 원수께서는 평남 관개 공사에 대한 설계를 이때부터 구상하셨었다.

원수께서는 서해에 무연히 펴져 있는 갈밭에 논을 풀면 어떻겠는가고 농민들과 의논하셨고 이 벌에 머지 않아 올 황금 시절을 그리시였었다.

이렇게 방대한 규모를 가지는 평남 관개 공사 3개년 계획이 성숙되였고 1948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였었다.

그러나 미제가 일으킨 전쟁으로 하여 이 거대한 숙망의 실현은 중단되고 모든 생활이 전쟁의 참화 속에 끌려 들어 가게 되였다.

평생 처음으로 지은 기와'집들이 원쑤들의 폭탄에 날아 나고 가문에서 처음 학교를 다니게 된 귀동이들과 부녀자들이 원쑤들의 흉탄에 쓰러져 갔다.

마을에는 다시 옛 지주들과 그 앞잡이들이 기어 들어 와서 활개를 치고 돌아 다녔다.

《5년간 소작료를 내라, 빚과 리자를 물어 내라!》—지주와 고리대업자들은 땅속에 묻었던 낡은 땅문서와 채용증을 꺼내여 휘두루며 호령을 쳤고

《로동당원 빨갱이는 3족을 멸해야 한다!》고 눈에 피가 서서 야단을 치며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남의 소, 돼지를 잡아 먹으며 질탕을 치며 덤비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굴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말없이 곡식을 땅'굴 속에 감추었고 소, 돼지를 뒤'구멍으로 빼돌리였으며 애국자를 대라는 원쑤들의 모진 매앞에서도 입을 봉하고 모르쇠를 대였다. 리 섭 로인은 세포 위원장의 간 곳을 대라는 놈들의 고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것을 댈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놈들!》

이렇게 떳떳이 대답하며 모진 매를 밤새껏 맞고서도 기어코 도망치고 말았다.

열두 삼천리의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자기 선조들의 용맹스럽고도 애국적인 전통에 부끄럽지 않게 용감하고 슬기롭게 원쑤들과 싸웠다.

우리들이 다 잘 아는 탄부의 아들 김재황을 중심으로 하는 안주 소년 근위대원들의 활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열두 삼천리'벌의 젊은이들이 원쑤들의 자동차를 파괴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전화선을 끊고, 삐라를 산포하며 용맹스럽게 싸웠다.

원쑤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할 수는 있었지만 열두 삼천리'벌의 떳떳한 주인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이벌 사람들은 두드리면 두드릴 수록 강해지는 강철과 같이 이 모진 시련속에서 단련되였고 닦으면 닦을 수록 빛이 나는 금광석처럼 정해지고 맑아졌다.

조 중 군대의 반격앞에 원쑤들이 청천강에 더러운 시체를 남기고 도망하자 이 벌 농민들은 감추었던 곡식들을 끌어내여 절구에 찧고 망에 갈아서 전선으로 실어 갔고 전시 증산에 모두 나섰다.

원쑤들은 4,000 여 호의 집을 마사뜨

리고 근 2천 여 명의 생명을 앗아 갔지만 열두 삼천리'벌 사람들의 승리의 신심을 꺾지는 못했다.

열두 삼천리'벌의 수천의 젊은이들은 직접 전선에서 원쑤를 무찔러 싸웠고 후방의 청년들은 전쟁 속에서도 강을 막고 수로를 내여 3천 여 정보나 수리 안전답을 확장하며 전시 증산을 하여 전쟁 승리에 이바지 하였다.

열두 삼천리'벌의 황금 시절

립석리 둔덕에 올라 서면 열두 삼천리'벌이 한 눈에 들어 온다. 서해 쪽으로 끝닿은데 없을듯 뻗어 나간 논벌, 북쪽으로는 청천강까지, 남쪽으로는 최령강 넘어 문덕, 숙천에 걸친 열두 삼천리'벌은 탐스러운 벼포기 싱싱한 논으로 꽉 차서 초록색 우단같이 아름답다.

김 일성 원수는 정전 후에 다시 이벌을 돌아 보시며 이벌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물을 이벌에 끌어 들일 설계를 꾸미시였었다. 그때 그이는

《래년에는 목마른 열두 삼천리'벌에 완전히 물을 줄 수 있다》

고 말씀하셨었다. 이리하여 평남 관개 제1계단 공사가 시작되였고 1955년에는 목마른 서해 지구에 청천강 맑은 물이 흘러 들게 되였다.

다시 이듬 해에는 제2계단 공사로 대동강물을 합쳐서 연연 2천리 수로를 따라 맑은 물은 열두 삼천리'벌을 샅샅이 적시며 흘러 들게 되니 이 벌 농민들의 세번째의 세기적 숙망도 완전히 풀리게 되였다.

유구한 날을 거칠고 메마른 대로 누워 있던 대지는 이제 거름'기를 띄고 땅이 무겁게 오곡이 익는 옥토로 되였으니 자연도 위대한 전환을 일으킨 것이다.

열두 삼천리'벌에 대동강과 청천강이 흘러든 것과 함께 거대한 변화는 이벌 농민들이 협동 경리의 길에 들어 서서 자신있게 사회주의 건설에 나선 거대한 전변이다.

당이 협동화의 길을 가리키자 이벌 농민들은 자신 있게 이 유일하게 옳은 길— 넓고 거칠은 열두 삼천리'벌에 영원한 락원을 이룩하는 이 길을 따라 나아갔었다.

동림리 봉석초, 박비리 룡암, 룡반리 교항, 만흥리, 발남 등 7개의 협동 조합이 이미 1954년부터 농사를 지였고 이듬해에는 대중적으로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현재 90% 이상의 농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확고히 발붙이고 있다. 협동 조합들은 모두 나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하게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고 조직적으로 강화되여 위대한 힘으로 되였다.

지난 해에 문덕군 내에서 133개의 협동 조합들이 분배를 하였는데 그중 109개의 협동 조합은 매호당 2톤 이상부터 3톤 9백까지의 분배를 받았고 20 여 개의 협동 조합들이 호당 2톤 정도의 분배를 받아 식량의 여유를 가지는 유족한 조합들로 되였고 이벌 사람들도 모두 가난과 굶주림에서 영원히 벗어 났다.

평남 관개 1계단, 2계단 공사에 매호당 200 여 공수의 로력을 나가고도 때맞추어 농사를 짓고, 새 집들을 4,000 여 호나 짓고, 전쟁에서 진두머리 앉은 생활을 일궈 세운 위대한 힘도 바로 협동화에서 나온 것이다.

누가 이벌을 갈대만 설렁이던 간석지라 하랴! 누가 이벌을 왕금이 가는 건갈이 땅이였다 하랴!

일망 무제 끝이 없는 3만 여 정보의 논판에는 만판 맑은 물이 흘러 들어 전같으면 씨도 못 붙였을 올같은 가물에도 벼가 뀌여지게 잘 되였다.

열두 삼천리'벌은 길고 긴 진통 시기를 거쳐 이제 자기의 황금 시절을 맞이 한 것이다.

문덕군 열두 삼천리'벌에 해방전에는 1,000 정보 밖에 없던 수리답은 12배 이상으로 늘어 1만 2천 9백 여 정보로 되고 알곡 수확은 1만 3천 900 여 톤이던 해방전 수준에 비하여 작년에는 그의 근 4배인 5만 2천 어 톤이나 났다.

해방전에는 이 넓은 벌에 학교라고는 국민 학교 네개에 사립 학교 둘 뿐이였다.

군내에 대학이나 전문, 중학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간혹 다른 지방에 가서 다닌다 해도 중학생이 7명도 못되였다. 전문, 대학생은 모두 17명이였는데 모두가 지주나 관리의 아들 딸들이였고 중학생들도 대부분은 밥술이나 먹는 자작농 이상의 아들 딸들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군내 각곳에 인민 학교 23개, 초급 중학교 7개, 고급 중학교가 1개 있고 여기서 전에는 글 배울 생념도 못하던 로동자, 농민들의 자녀들 근 2만 명이 공부하고 있다. 대학생만 해도 53명인데 그중의 대부분은 로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이고 9명은 쏘련을 비롯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에 류학까지 하고 있다.

해방전에는 공의 2명, 의생 4명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돈 있는 사람만을 치료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40대의 침대를 가진 두개의 종합 병원과 7개의 진료소가 열두 삼천리'벌 각곳에 있어 인민들의 치료에 복무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곳 농민들이 구경도 못해 보던 영화관이 두개나 생기고 각 협동 조합마다 구락부와 민주 선전실이 있어 인민들의 문화 생활에 복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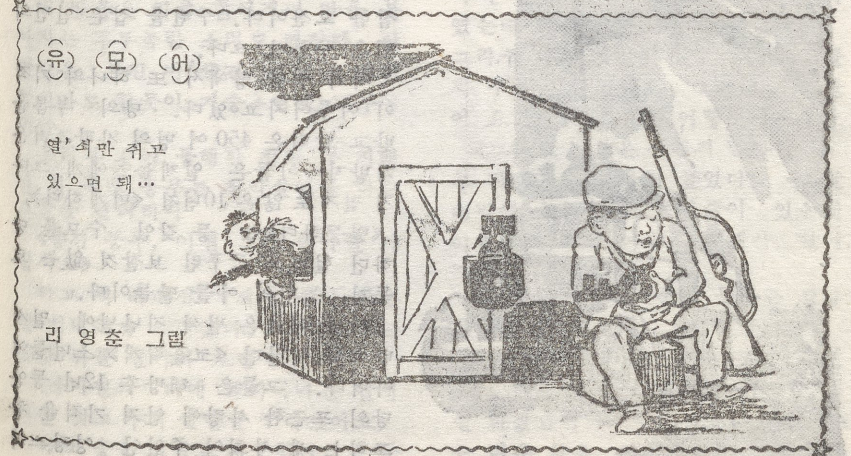
불과 12년간에 이러한 위대한 전변이 있은 것을 일찌 우리의 력사에서 찾아 볼 수나 있겠는가! 그것은 참으로 우리 인민 력사에서 전례 없는 속도의 나날이였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더 빠른 속도로 전진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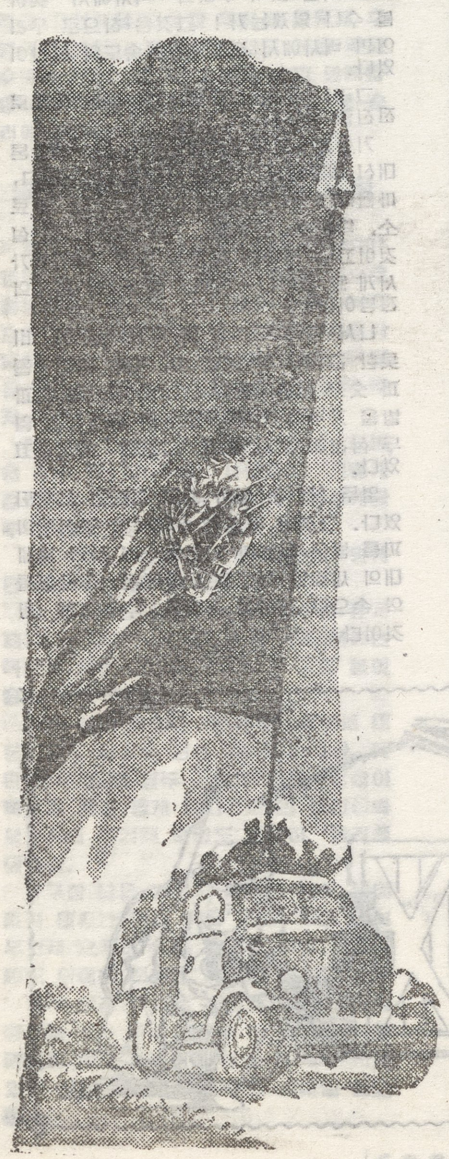
기름진 열두 삼천리'벌에서는 5만톤 대신 10만톤에 가까운 수확이 날 것이고, 마을마다 기와를 얹 문화 주택과 진료소, 탁아소, 유치원, 구락부들이 들어 설 것이고, 리마다 훌륭한 초급 중학교가 서게 될 것이다—이것은 불과 5년 어간의 전망이다.

니서 협동 조합의 안 재필 동무를 비롯한 근 3백 여 명의 초, 고중 졸업생들과 숫한 젊은이들이 이날을 위하여 사과밭을 가꾸며 기술을 배우며 무르익는 열두 삼천리'벌의 황금 시절을 설계하고 있다.

열두 삼천리'벌의 황금 시대는 시작되였다. 그것은 이벌의 슬기로운 조상들의 피를 받은 용맹한 사람들—새 나라 새세대의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된 젊은이들의 손으로 건설될 것이고 무르익게 될 것이다.



개 발 자 들



—송남 청년 탄광을 찾아서—

질로 십리, 돌아 이십리, 가창에서 서북으로 매미소리, 물소리 들으며 가벼운 걸음을 옮기노라면 물 좋고 산 좋은 송남 땅에 이른다.

우리 나라 무연탄 매장량의 60%를 차지하며 이제 몇해후이면 해마다 40—50만톤의 무연탄을 캐낼 송남 청년 탄광이 이곳에 건설된다.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 쥔 우리는 해방 후 12년 동안에 실로 온 세상 사람이 놀랄만큼한 기적을 매일매일 생활에서 쌓았다.

일제는 조선의 공장과 탄광들을 파괴해 놓고 쫓겨 가면서 조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고 방상했다. 인민의 힘을 믿지 않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습성이다. 이것은 심한 오산이다. 주권을 잡은 인민의 힘은 무한정 크다.

여기 송남 땅에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당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450 여 명의 사랑스러운 개발자--이들은 일제놈들에게 그다지 멀지도 않은 10년전 《미개하다》, 《렬등하다》는 등 갖인 수모를 당하던 헐벗고 굶주린 보잘것 없는 로동자, 농민의 아들 딸들이다.

허나 이들은 벌써 지난날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코흘리개》 소년들이 아니다. 그들은 해방후 12년 동안 당의 포근한 사랑에 안겨 기적을 창조하는 새 사회의 주인인 영광스러운 로동 계급으로 자라난 영웅 조선의 청년들이다.

《우리 동무들은 벌써 첫 로동의 개가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내로 60동의 주택과 1,100평방메터의 갱도 굴진과 6키로메터의 송전선, 전화선 그리고 200마력 압축기 설치등등 래일을 위한 중요한 공사들을 치루어야 합니다.》

청년 부 지배인 김 득병 동무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그를 따라서 스무나믄채나 되는 아담한 채령리 마을을 지나 넓은 개울'가에 내려 갔다. 변덕스러운 여름 하늘엔 갑자기 먹장 구름이 쓸어 새벽까지 뿌리다 만 지꿎은 장마'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마치 채석장을 찾아 간듯한 기분이였다. 수많은 남녀 젊은이들이 돌을 모으며 녕변가에 금강산 타령을 꼬리 꼬리 무는데 그들은 서투른 가수도 아니요 이미부터 훈련된 하나의 합창단 성원들 같았다. 우리가 물끄러미 그들을 보는 새에 여기 저기엔 불쑥불쑥 봉긋한 돌무지들이 생겨갔다.

비'방울은 차츰 굵어지며 땅을 볶아치는 후두둑한 소리도 커진다. 창살같은 모진 비'줄기가 땅을 깨쳐 놓기라도 할듯이 기승스럽게 퍼부어댄다.

우리와 같이 동행한 청년 부 지배인 김 득병 동무는 천막살이를 하는 그들을 념려하여

《종진 동무, 이젠 그만 돌아들 가십시요》

하고 쩍 바라진 어깨에 목이 밭은 한 청년에게 소리쳤다. 그러자 그는 흘깃 뒤를 돌아다 보면서

《장마철의 비에 물러나다간 언제 집을 짓고 우리 살림을 꾸리겠어요》

하고 웃는 얼굴로 대꾸한다. 딴 동무들의 입에선 여전히 노래'가락 높은 민요가 흘러 나오고 그들의 손이며 다리는 더욱 잽싸게 논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런 기세로써 그 청년의 대꾸에 호응하며 비를 몰아 내는 것 같이 보였다.

이윽하여 지도부에선 고무 비옷을 보내 왔다. 그것들을 나누어 입고 있는 동안에 박 종진 동무는 부 지배인에게 담배를 청하더니 비옷을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나서 몇모금 빨다가 그치였다.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 지배인 동무 우리 보고 비와 병 얘기, 휴식 얘긴 말아 주십시요. 작업 책임자인 나도 요전날 그런 소릴 했다가 동무들 한테 되려 공격을 받았는걸요》 하면서 말을 이었다. 《우린 정말 오륙을 쓰지 않곤 못견뎁니다. 비가 다 뭡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우린 자기들이 있던 직장에서 수백통의 편지를 받았지요. 통신원 령감이 편지 한보따리를 지고 오면서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지게를 지고 다녀야 하겠다더군요. 내가 있던 교육 도서 인쇄 공장에선 민청원들이 나의 일까지 도맡아 할 것을 결의하였는데 벌써 성과가 큰 모양입니다. 그리구 나의 가정일까지 따뜻하게 돌봐 주고 있다던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요까지 비에 저선 어떻겁니까?》

《그래도 건강은 상하지 말아야지》 부 지배인은 낮윽히 물었다. 《오늘 천막에 누워 있는 동무들이 있는데 어제 작업에서 너무 무릴해서 탈이 나지 않았소?》

《아닙니다.》 박 종진 동무는 갑자기 미소를 띄면서 도리질을 쳤다. 《무리라니요? 그 쯤한 일을 무리라고 해서야 어느 세월에 탄광을 건설 하겠습니까? 사실인즉 마시라는 더운 물은 마시지 않고 랭수를

퍼 먹어대니 그놈의 배때기가 무슨 수로 견데 내겠습니까. 표덕 동무만 해도 그래서 배탈을 만났지요. 참 사람두—》

우리는 한바탕 통쾌하게 웃었다. 일은 다시 시작하였고 우리는 사무실로 길을 올랐다.

우리가 낮에 본 모든 것들은 문'자 그대로 랑만이며 청춘의 즐거움이다. 이제 여기엔 가창에서부터 20리 철길이 늘여지고 천막이 있는 바로 저 자리엔 즐비한 사택들이 키를 다투고, 저만치 개울 건너 가풀막진 언덕 우엔 청년 탄부들의 구락부가 일어설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상에 새로운 도시가 청년 탄부들의 이름과 함께 그려질 것이 아닌가!

그때면 여기서 캐낸 무연탄의 사태가 기적도 높이 평양으로, 흥남으로, 청진으로, 개성으로 우리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실려가 인민 경제와 인민 생활의 수요에 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과 누이며 동생들은 여기 먼 곳의 첫 개발자들을 얼마나 축복하랴!

한겻이나 뿌리던 장마'비도 멎고 개인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초밤이였다. 석개울을 사이에 두고 냉정골을 마주 보며 촘촘히 자리 잡은 70여개의 천막안은 전등'불이 밝다. 우리는 박 봉주 동무네 천막안에 들어가 잠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우리와 동숙하는 몇몇 젊은이들과 이것 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눈을 감았다. 그런지 얼마 지난 뒤였다. 나의 옆엣 친구는 벌써 꿈나라로 갔는지 코고는 소리가 드렁드렁 나고 저쪽 구석에서도 그 소리는 났다. 평양에서 가창까지 개발자들을 보내며 맞으며 환호성을 올리던 군중들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던 나는

《표덕 동무 난 동무의 일이 아무래도 노엽소!》

하는 무뚝뚝한 소리에 귀'박을 세웠다.

《뭘 자꾸 동무는 그러는거요?》

상대방도 수그러들지는 않았다. 그들 사이에 옥신 각신 하노라 어조가 높아지는데 조만간 끝장날것 같지 않았다.

《난 동무의 일이 하여간에 괘씸하오》



《그따위 소리 걷어치우오. 나도 자원해서 여기로 온 몸이요. 올때 동무들한테 선물을 받으면서 난 로력 영웅이 되겠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요》

《근데 왜 동문 남의 일에까지 빤치고 있소. 배탈을 만났으면 혼자나 앓을 것이지 왜 남의 일을 방해하오?》

그제사 나는 공격하는 측이 만덕광산 착암수인 박 봉주 동무이고 공박을 받으면서도 뻗치는 측이 고원탄광 지주공인 김 표덕 동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요 나달동안 가창역에 나가 목재를 하차하고 까스트바에 싣는 일을 하고 있는데 표덕이는 배앓이로 오늘 하루'동안 일에 못 나갔었다. 봉주는 다시 불평조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동무가 개발지에서 로력 영웅이 되겠다고 맹세한건 좋소. 동무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자기 공장 동무들한테 맹세하였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맹세를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게 아니요. 난 하여간에 동무의 일이 노엽소. 오늘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소. 우린 자동차가 진창길에 자꾸 빠지기 때문에 목재를 다 운반 못했소. 그러나 이젠 비도 멎고 해서 난 운전수에게 낮에 못한 일을 마저 해치우자고 하였는데 동무는 옆에서 왜 훼방을 떨었소. 동무가 그런 부질없는 짓을 아니 했더면 운전수는 나의 요구에 선선히 응했을거요. 근데 동무는… 동무는 한채의 집이라도 더 빨리 지어야 무연탄도 더 빨리 캘 수 있다는 걸 모르오!》

《봉주 동무!》 표덕이는 듣기 거북한지 이렇게 부르며 봉주의 말허리를 꺾는다. 그리고 나의 귀에 언뜻 들리기엔 구실인 듯한 말을 느릿느릿 한다.

《나도 그것을 잘 알고 있소. 절대로 구실이 아니요. 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 뜨겁게 환송하고 환영해 주었는가를 회상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오. 그들의 그런 마음이야 말로 우리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가 아니겠소. 이것은 곧 전체 인민들의 기대이며 당과 정부의 신임이요.》

《근데 왜?》 하고 봉주는 참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덕이가 다시 한번

《봉주 동무!》 하고 부르자 입을 다문다. 말을 잇는 표덕이는 그의 어조로 보아 심히 괴로워 하는 것 같았다. 《난 제딴의 리유가 있어서 동무의 주장을 막았었소. 사실 나는 배앓이 몸이지만 어쨌던 동무들 앞에 부끄러웠소. 난 오늘 하루 쉬였는데 동무들이 밤에 일을 또 나가게 되면 동무들의 열성에 비해 나의 립장이 더 거북해지리라는 걸 생각했소. 동무들은 나를 보고—딴 동무들은 밤 도와 일을 하는데 저 녀석은 락후 분자처럼 앓고만 있다—구 할게 아니요.

난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요!》

봉주는 말이 없었다. 사정을 알고 보니 그는 자기가 표덕이에 대해 너무도 지나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느낀 모양이였다. 침묵은 한동안 흘렀다.

눈을 감은채 듣고만 있던 나는 푸드득 하는 소리에 눈을 번쩍 떴다. 참새 한마리가 불을 보고 천막안으로 뛰여 들었다가 갈팡 질팡하는 것이다. 봉주와 표덕이는 인차 어디론가 말없이 나갔다. 그들이 이웃 천막에서 누구를 깨우느라 좀 떠들석하던 사위는 다시 잠잠해졌다. 얼마후에 우리의 앞길로 해서 내닫는 까스트바의 으르릉 소리가 메아리쳤다. 이날밤 봉주와 표덕이 그리고 그들의 작업 반원들은 밤새 목재를 운반하였던 것이다. 새 것을 창조하는 송남의 훌륭한 서사시 속에서 지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 영웅들이 자라고 있다.

송 선경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힘은

리 봉 재

바다와 하늘 맞닿은 저 멀리
이글거리며 솟는 팔월의 아침 태양
공장 지구를 밝히는데,
우리 두 사람은 언덕 우에 서 있어라.

유리창마다 비끼는 자지'빛 노을
밤낮을 이어 울리는 전동기'소리
어디서나 순시도 못 잊을
값 있는 우리의 생활터여!

해풍 가벼히 희롱하는
이마의 머리카락 쓰다듬어 올리며
그대는 다감한 얼굴로
나를 바라 보아라.

조수인양 물'결 일으켜
내 가슴에 넘치느니
그대 눈'동자에 담겨진
사랑으로 타는 깊은 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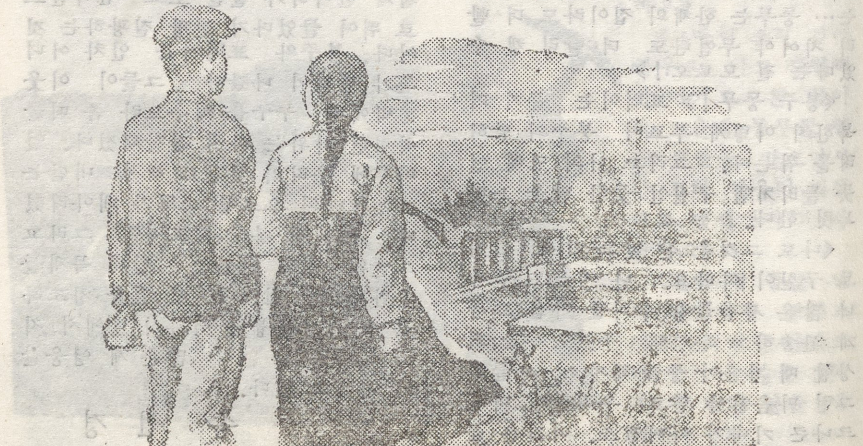
벽을 달리한 저 제흐 한 구석에서도
나의 뜻은 그대 손'길에 닿아 있어
힘을 오로지하여 붓는 주물은
그대의 기대에서 제품 이루어짐이니…

오고 가며 쳐다 보는 게시판 우에
그대와 나의 이름 자주 찬양될 때
이를 두고 우리는 자랑스레
사랑의 척도라고 말하리.

그대여, 황금을 품어 아름다운 우리 땅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자.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힘은
조국의 품속에서 살고지고.

가까이 다가서라 나의 길 동무여,
어떤 험준한 길도
두 몸을 가르지 못하리란
그 언약 저바릴 것이냐.

…새 교대를 받으려
젊은 대오들이 밀려드는
공장 넓은 정문을 향하여
우리 두 사람은 언덕을 내려라.



자랑하세 조국 산천

(땅 속의 보물 2)

조선 로동당 중앙당 학교
정치 경제 지리학 강좌

김 정 희

(전호에서 계속)

4. 유색 금속 광물 자원

유색 금속 광물이라함은 금, 은, 연, 아연, 동, 백철, 크롬, 알미늄, 마그네슘 등의 광석을 말한다. 이들 금속은 각각 철이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물리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기계 공업, 화학 공업 및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많이 수요된다. 이 유색 금속 광물들은 비록 지구상에 그 매장량과 그의 분포가 적기는 하지만 금과 은을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다른 광물 보다 높이 평가된다.

우리 나라는 과거부터 금이 많은 나라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가리켜《황금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조선 땅에 금이 많다는 사실은 그 채굴 실적에 의해서도 증명되는바 1939년 한해 동안의 순금 채굴량이 31톤 여에 달하여 세계 제7위였고 령토 면적에 대비한 금 산출량으로는 아프리카주의 트란스발과 함께 실로 세계에서 제 1위를 차지한다. 때문에 우리 나라의 금광 개발 력사가 말하여 주듯이 오래 전부터 외래 제국주의자 특히 미, 영, 일, 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야수적 략탈의 대상으로 삼아 왔었다.

특히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귀중한 지하 자원들을 마음대로 략탈하고 있

으며 북반부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략탈하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하고 있다.

금은 다른 금속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특수한 성질 즉 내연성이 강하고 견고하며 모든 금속들 중에서 연성과 전성이 가장 크다. 실례로 금은 한 그람의 분량을 가지고서도 길이 2천 메터나 되는 아주 가는 실을 뽑을 수 있으며 두께를 만분의 1 미리까지 엷게 펼 수 있다. 때문에 금은 정밀 기계 또는 귀중한 공예용품들을 만드는데 많이 쓰인다.

우리 나라 금광은 그의 산출 상태(產出 狀態)로 보아 함금 석영맥, 접촉 광상, 사금 광상 세 종류로 구별된다.

함금 석영맥은 평안북도를 비롯한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에 널리 분포되여 있으며 접촉 광상은 황해 북도에 많이 분포되여 있다. 또 사금광은 평안남도, 함경남도, 전라북도의 금제군이 그의 명산지이다. 이와 같이 금은 우리 나라의 전국 각지에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이 금과 함께 우리 나라에는 그 역시 귀금속에 속하는 은(銀)도 많이 매장되여 있다. 은은 광택이 있는 백색 금속이며 전성과 연성에 있어서 금의 다음 가는 귀중한 금속이다.

우리 나라에서 은광은 보통 금광과 함께 각지에서 산출되며 또는 다른 많은 유색 금속 광물들과도 섞이여서 산출된다. 즉 연—아연—은광, 동—금—은광 등과 같이 한 광석에 여러 원소들이 포함되여 산출되는 것도 많다.

우리 나라에서 연(鉛) 생산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있다. 이 연광은 거의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이 금, 은과 같이 산출되는 것이 통례이다. 우리 나라의 연광은 방연광이 압도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 아연광의 중요 광물인 섬아연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은, 안찌모니, 창연, 동(銅) 등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다. 연은 주로 석회암 가운데 많이 섞이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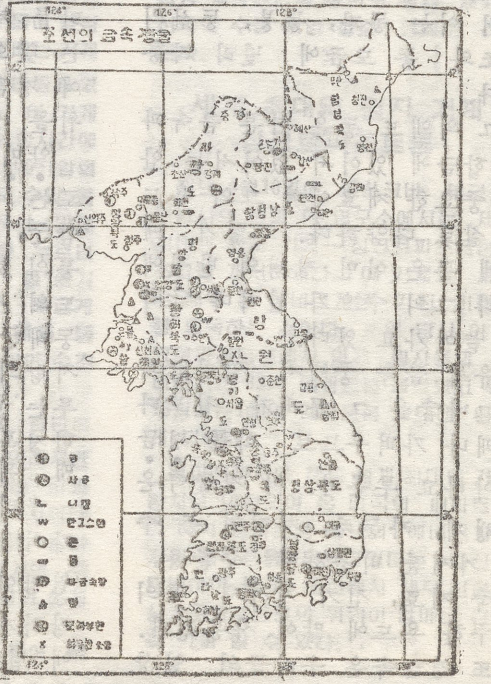
방연광은 전 조선 각지에 있는바 그 주요한 산지를 들면 함경남도, 강원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경기도의 양주군, 수원군, 충청북도의 제천군, 충청남도의 홍성군, 경상북도의 영주군, 봉화군, 영양군, 문경군, 경상남도의 창원군 등지이다.

연은 동과 같이 철 이외의 금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며 따라서 인민 경제

부문에 널리 리용된다. 연은 값싸고 연하고 무거우며 낮은 온도에서도 잘 녹으며 전성과 내연성이 큰 우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류산을 제조하는 연실(鉛室)을 비롯하여 화학 실험실에서의 각종 산류 배수를 위한 연관, 또는 철관 련결을 위한 빳킹, 전화 까벨선 기타의 피복물 등에 널리 리용되며 그 외에 독연은 안찌모니 주석 등과 합금하여 축전지용 극판, 활자, 합금 베아링, 합금 납땜과 주석 식기용 합금 등으로도 리용된다.

우리 나라에서 산출되는 아연광석에는 섬아연광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바 다수 경우에 방연광과 같이 산출되며 때때로 황동광, 황철광을 수반하는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서 섬아연광의 분포는 연광에 비하여 넓으며 큰 광상도 비교적 많다. 주요한 산지로서는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경기도의 포천군, 양평군, 수원군, 충청북도의 제천군, 보은군, 전라북도의 금산군, 경상북도의 양덕군, 봉화군, 영양군, 경상남도의 진주군, 밀양군 등지이다.

이 아연은 비교적 연한 금속이다. 보통 온도에서는 연성과 전성이 적어서 마치로 때리면 부스러지나 100~150°c로 가열하면 박판으로 압연할 수도 있고 줄로 뽑을 수도 있다. 또한 아연은 습기로부터의 산화를 방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철판, 철선 등의 산화 방지를 위한 도금용 재료로도 널리 사용된다. 그 외에도 아연은 합금 재료로서와 분, 약제,



뺑끼 등 제조에 사용된다.

다음 동(銅)에 대해서 볼 때 우리 나라의 동광 중에는 황동광이 주되는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그 주요 산지로서는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경기도의 포천군, 전라남도의 고흥군, 경상북도의 달성군 등을 들 수 있다.

동은 유일한 적색 금속인데 얇게 되는 성질과 길게 뽑을 수 있는 성질에 있어서 금과 은의 다음에 간다. 또한 동은 전기를 잘 통과시키며 녹이 쓴다 하여도 철과 같이 내부까지 가지 않고 표면에 국한한다. 따라서 이는 동판, 동봉, 동선의 제조와 동 도금에 널리 리용된다.

그 외에도 동은 다른 금속과의 합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재료이며 그의 용도는 실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은 인민 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의 수요가 날마다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유색 금속 중에서 알미늄과 마그네슘은 그 무게가 철보다 몇배나 가벼우므로 이를 경금속이라고 부른다. 이 경금속은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등 수송 기재를 비롯하여 주물용, 건축 재료, 전기 기자재 등의 특수한 용도에 많이 사용된다.

또 경금속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데도 많이 쓰인다. 즉 우리들의 생활에 쓰는 도구들은 굳고 질긴 것을 요구한다. 물론 철은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나 오직 무거운 것이 그의 결점이다. 때문에 우리는 튼튼한 동시에 보다 가벼운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경금속 즉 마그네슘과 알미늄 등이다. 무거운 가마 대신에 경금속 가마, 무거운 철제 주전자와 놋그릇 대신에 알미늄 주전자와 식기가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경금속은 우리 생활에서 점차 광범한 자리를 차지하여 가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거운 것을 대신하여 경금속의 더 많은 리용 범위를 상상할 수 있다.

알미늄의 원광석 주요 산지로는 전라남도의 해남군, 령암군, 진도군, 무안군, 완도군 등의 해안 및 도서들과 경상남도의 김해군, 창원군, 통영군 동래군 등지를 위시하여 평양 지방의 무연탄층의 하반을 이루는 반토혈암에서와 강원도, 함경북도 등 전국 각지에 널리 매장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알미늄보다 더 가벼운 경금속인 마그네슘의 원광인 마그네사이트광도 무진장하게 가지고 있다. 우리 조선에 널리 분포된 석회암 지층은 마그네사이트의 거대한 광상을 이루어 놓았다. 우리 나라는 마그네사이트광의 세계적 매장지이다.

우리 나라 동북부의 마천령 산맥을 중심하여 함경남도, 함경북도에는 이미 판명된 량만 하여도 36억 톤 이상이나 매장된 실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광장한 마그네사이트 광상이 있다.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접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서부터 바다 물로부터 무진장한 마그네슘을 얻어 낼 수 있는데 바다 물에는 염과 마그네슘이 1.05%나 포함되여 있다. 우에서 소개한 이들 경금속은 그가 가지는 성능상 우점으로부터 수요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때문에 현대 공업에서 경금속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가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들 원료로 되는 각종 유용 광물이 풍부하며 경금속의 제련에 필요한 전기가 풍부하므로 경금속 공업의 전망은 자못 기대되는바 크다.

과학 지식

물이 강철을 벤다

쏘련의 공업은 물이 강철을 베는 기계를 만들고 있다. 이 기계는 한시간에 1,200리터의 물을 2,000기압의 압력으로 내뿜는 고속도 수압 콤프레샤이다. 이 콤프레샤 앞에 강철판을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모타가 돌아 가면서 가는 물'줄기가 음향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강판을 향해 내쏘는데 례를 들어 2미리메터의 강철판이면 수초 동안에 구멍이 뚫어 진다.

종래에는 경질 자재의 절단은 상대적 경도가 높은 기구에 의해서만 절단되여 왔는데 그러한 기구는 비교적 속히 닳아 못 쓰게 된다. 그러나 이 수추(물송곳)기계는 절대로 닳아 못쓰게 되지 않으며 또 물'줄기의 작용은 나무나 강철이나를 다 같이 쉽게 뚫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 기계는 례를 들어 로천광 채굴, 금속 표면의 광재 제거, 선박의 수중 저면 청소 등에도 리용된다.

세계 최대의 원자 기계 싱크로파조트론

지난 4월10일에 모쓰크바 부근 부브나시의 련합 핵 연구소에서는 세계 최대의 원자 기계— 싱크로파조트론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 이 기계의 사명은 매우 큰 에네르기를 가진 미립자를 획득하는 것이다. 조업 당시 이 싱크로파조트론에서 얻은 립자들의 에네르기는 83억 엘렉트론 볼트였고 4월 16일에는100억 엘렉트론 볼트에 달하게 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대의 가속장치로 인정되여 온 미국의 베바트론이 63억 엘렉트론 볼트의 에네르기를 가진 립자들을 획득하였다는 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쏘련에서 새로 건설된 싱크로파조트론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가히 알 수 있다.

초급 민청 단체의 임무는 어떤 것입니까

초급 민청 단체들이 자기의 임무를 똑똑히 알고 그것을 옳게 실천하는 것은 민청 사업을 강화하는 기본 열’쇠로 됩니다.

왜냐 하면 초급 민청 단체는 민청의 기본 조직이며 민청의 모든 사업은 초급 민청 단체를 통하여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급 민청 단체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해석 선전하며 그의 집행에로 청년들을 조직 동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념원은 조국을 하루 속히 통일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사회주의 사회 나아가서는 공산주의 사회를 조선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은 우리의 이 념원을 담지 않은 것이라군 없습니다. 례로서 공업화 정책, 농업 협동화 정책, 등 모든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정책들은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며 우리 인민의 리해 관계와 일치하며 우리 혁명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그런데 당의 정책은 그의 집행자들인 광범한 인민들이 그 정책의 본질을 깊이 리해하고 접수할 때만이 거대한 물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매시기 제기되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청년 군중속에 부단히 해석 선전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 정책의 적극적 옹호자로, 견결한 실천자로 되도록 고무 추동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청년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의 요구와 신소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며 그들의 생활에 항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이 임무는 초급 민청 단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왜냐 하면 각계 각층 청년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민청 조직 사업의 기본인데 초급 민청 단체들은 각계 각층 청년들과 직접적으로 련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옳은 군중 관점을 가지고 청년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며 어떤 애로가 있고 무엇을 알고저 하는가를 알아내여 그것을 제때에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세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정치 학습을 지도 방조하며 도덕 교양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수준에 맞게 교양망을 조직 운영하며 강연, 보고, 담화, 해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로력과 소유에 대한 자각적 태도, 인민적 례절, 그리고 사랑, 결혼, 가정에 대한 정확한 태도등 조선 청년들이 가져야 할 고상한 도덕적 품성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는 사업에 일상적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네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선진 과학 기술 습득을 적극 방조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선진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기술 인재들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많이 요구됩니다.

왜냐 하면 사회주의는 고도로 발전된 현대적인 기술에 의하여 건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각종 기술 교육망에 책임적으로 참가시키며 특히는 로련한 기술자들과의 창조적 협동, 그리고 창발적인 각종 기술 경기들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의 선진 과학 기술 습득을 적극 도와 주어야 합니다.

농촌 초급 민청 단체들에서는 각종 영농 기술 학습반에 참가시키며 특히는 모범 농민들에게서 허심하게 배우게 하는 방법으로 청년들의 선진 영농 기술 학습을 지도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다양하고 흥미있는 군중 문화 체육 사업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될 것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문화적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독서 감상 발표회, 영화 감상 발표회, 시 랑송회 등 군중 문화 오락 사업을 활발히 조직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의 체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체육 스포츠 사업을 발전시키며 특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인민 체력 검정 훈련과 수검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합격하도록 방조하여야 합니다.

여섯째로,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국가 계획을 완수하며 선진적 경험을 일반화하며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를 애호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며 우리 인민들이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건물과 더 많은 물품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증산 경쟁 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특히는 설비 리용률의 제고, 선진 기술의 도입, 그리고 로동 규률을 강화하며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모범적 역할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초급 민청 단체들은 인민 경제의 각부문에서 국가 및 협동 단체 재산을 극력 애호 절약하며 그를 부단히 증가시키도록 청년들을 교양 훈련하여야 합니다.

일곱째로, 청년들을 민청 대렬에 정상적으로 받아 들이며 맹비를 정확히 수납하는 것입니다.

한사람의 청년이라도 민청에 받아 들여 교양하는 것은 우리의 혁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신을 위해서도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때문에 초급 민청 단체들은 청년들에게 민청의 영향을 주어 그들을 정상적으로 민청에 받아 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청의 재정 원천으로 되는 맹비를 정확히 받아서 규정된 기일내에 시,(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덟째로, 민청원들이 규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부여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초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에게 민청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해설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민청원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옳게 행사하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초급 민청 단체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자면 초급 민청 단체 총회와 집행 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초급 민청 단체 총회는 초급 민청 단체의 최고 기관으로서 매시기 제기되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책들을 민청원들에게 알리며 상급 민청 단체의 결정과 초급 민청 단체들이 해야할 일들을 토의하고 분공하며 그의 실행 정형을 총화합니다.

또한 총회에서는 민청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선거한 집행 위원회의 사업 보고를 들으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며 민청원들의 규률 문제를 취급하며 새로운 청년들을 민청에 가맹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급 민청 단제 총회는 초급 민청 단체 앞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민청원들의 집단적 활동을 보장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초급 민청 단체들은 총회를 1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되 그의 수준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아무리 좋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절로 집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된 문제들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초급 민청 단체 사업을 일상적으로 조직 지도하는 집행 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가 할 사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초급 민청 단체 앞에 제기된 과업 실행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적극 조직 동원하며 민청원들의 민청 생활 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하고 통제하며 민청원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그들에게 사업을 분공하고 그의 실행 정형을 일상적으로 총화하며 둘째로, 충분한 준비 밑에 총회를 정상적으로 소집하며 집행 위원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끝으로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자기 단체 사업 정형을 상급 민청 단체와 총회에 정상적으로 보고하며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그리고 능숙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민청원들이 납부하는 맹비를 제정된 기일과 절차에 의하여 시, (구역) 군 민청 위원회에 납부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초급 민청 단체 집행 위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으며 다만 그에 복종하여 총회와 총회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조직 집행할 뿐입니다.



판매원의 기쁨

《그 판매원 참 친절도 하오》 오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치하의 말을 듣곤하는 채하 식료 상점의 판매원 최 금옥은 이아침도 스피카에서 울려 오는 여섯시 보도와 경쟁이라도 하듯 카텐이 드리운 상점문을 활짝 열어 제낀다. 그리고는 산뜻하게 단장한 위생복 옷자락을 연신 날리며 상점안 구석 구석을 쓸고 거두기에 부산스럽다.

《깨끗한 상점의 상품은 맛도 좋고 사가는 사람들의 기분도 행결좋지요.》

이것은 상점 지배인의 말이다. 금옥은 닦고 쓸때마다 이 말을 상기하면서 날개라도 돋힌듯 진렬장이며 진렬대를 정리하는 것이다.

어느덧 상점안은 알뜰해졌다. 금옥의 마음도 저윽히 명랑해지는것 같았다. 이윽고 그는 매대우에 놓인 일지책을 번지더니

《첫째, 리용 생산 공장에 가서 조미료와 과자류를 접수해 올것, 둘째로, 식초를 구매해 와야지…》

하고 입속말로 중얼거리곤 바삐 적어 넣는다.

사실 금옥이가 판매원으로 있는 채하 식료 상점은 신의주시에서도 가장 복잡한 채하 시

장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로동자 사택 지구의 고정객들을 상대하고 있는것만큼 아무리 많은 상품을 가져와도 하루 이상 체화되는 때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이 상점의 실정이 여실히 말하여 주는바 그전에는 조미료부에 금옥이가 혼자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바쁘지 않았고 상품도 며칠에 한번씩만 접수해와도 되였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거듭되는 배려에 의하여 수차 물가가 내려가고 임금이 오르면서 상점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전보다 몇배로 증가되면서 이제는 조미료부만을 두 사람이 보아도 도무지 앉을 짬조차 없어졌다. 그런 까닭에 판매하는 일 뿐만이 아니라 상품을 접수해 오는 일도 하루 건너씩으로 바빠진 것이였다.

《은백 동무가 나오면 공장 갈 차부를 해야지》

금옥이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아직 물낡지 않은 군복을 입은 청년이 나타났다. 그가 바로 금옥이와 같이 조미료부에서 일하는 판매원 유은백이다. 그는 인민 군대에서 제대되자 곧 이 상점에 배치된 것이였다.

《벌써 청소를 다 했구려》

《식사를 하셨나요? 은백 동무!》

《그러문요. 어서 가서 식사 하시구려》 그들이 이런 말을 주고 받을 때였다.

《안녕하시우. 전번엔 버섯을 친히 구해다 팔아 주어서 감사해요》

《괜한 말씀이예요. 어서 들어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건면을 사려구요》

《건면을요? 어제 저녁까지 다 팔았는데…》 매대 밑을 들여다 보며 금옥은 미안한 낯으로 손님을 쳐다 본다.

《그러문 어떡허나? 다른 상점에두 다 팔렸던데》

손님은 저윽히 난감한 얼굴이다. 이틀에 한번씩은 꼭꼭 상점을 찾아 주는 사택 지구의 고정객 중의 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난처해 하는 것은 오늘이 시어머니의 생일인데 생일 준비에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 하시는 건면이 빠져 있었으므로 남편의 권고에 의하여 뛰여 왔다는 것이였다. 그래서 금옥은 언뜻

《아주머니! 우리 인차 구해다 드려요. 한시간후에 오세요》 하고 약속하였다.

《고마워요. 그럼 부탁하겠어요》

아주머니는 언제 보아도 친절하고 고객의 편리를 힘껏 돌봐

주는 이 판매원의 살뜰한 마음새에 감사하여 만족한 얼굴로 상점을 나섰다. 금옥은 그를 돌려 보내고 곧 위생복을 벗더니

《내 다른 상점들에 가 보겠어요》

하고 나서는 것이였다.

《아니 식사는 안하구요?》

은백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 본다.

《갔다 와서 하지요》

금옥은 생긋 웃어 보이고는 휭 나가 버린다.

《기특한 녀자야!》

금옥의 뒤'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미소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은백에게는 그가 왜 저렇게 열성스레 뛰여 다닐가 하는 것을 리해하기 어렵지 않았다.

은백이가 이 상점에 와서 얼마 안되였을 때의 일이다.

《판매원 동무! 안녕하세요. 우유를 구해다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다 들린 한 아주머니의 금옥에 대한 인사의 말이였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아이가 좀 나아요?》

《먹지 못해 파리하던게 우유를 먹고 기운이 나는지 이젠 제법 잘 놀아요. 호호호…》

《그래요!》

금옥의 얼굴에는 어느덧 만족의 빛이 내돈다. 아주머니의 아이는 두 돐이 금방 지났는데 어머니의 젖이 나지 않아서 탁아소의 우유를 받아다 먹고 있었다. 그러던중 때마침 탁아소에서 우유가 며칠간 떨어져서 아이는 곤경에 처해 있었다. 아주머니의 이러한 딱한 사연을 들은 금옥은 그때도 즉시로 손수 우유를 구매하여다 팔아 주었던 것이다. 그때 아주머니는 얼마나 고마워 했던가! 그 며칠후 그는 자기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봉사하고 있는 상점 일'군들에게 인사하려고 일부러 들려 주었던 것이다.

은백은 벌써 이런 일을 여러번 보아 왔다. 이럴때마다 그는 금옥과 함께 인민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판매원의 직무에 대한 영예를 다시금 느끼곤 했던 것이다. 고객과의 이런 관계가 굳게 맺어지면 질수록 상점 매상고는 높아만 갔다. 3월에는 172.2%, 4월에는 185.1%, 5, 6월에는 그 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아 자기들의 인민에 대한 봉사성도 인민들의 자기들에 대한 평가도 그만치 높아 간다고 은백은 생각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7만 여 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으며 3개년 판매 계획 과제를 3개월 단축하여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금옥은

공로 메달을 수여받게 되였던 것이다.

바로 인민에게 복무한다는 자부심과 영예감이 금옥을 그렇게 열성적으로 뛰여 다니게 하는 것이리라…은백이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뒤'문쪽에서

《은백 동무! 가져 왔어요. 16호 상점에 있더군요》

하는 숨 가쁜 소리가 들려 왔다. 그는 20키로나 되는 견면을 몸소 지고 왔던 것이다.

《수고했수다. 아주머니가 기뻐하게 됐군요. 보람을 찾으려면 확실히 창발성이 필요해요.》

은백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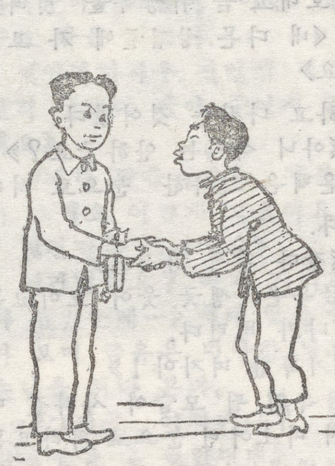
하고 대답하는 금옥의 눈은 판매원의 긍지와 자랑으로 빛났다.

《그럼 난 갔다 오겠어요. 식사하구 와선 또 식초 구매하려 다녀 와야겠어요. 요즘은 채소들이 많이 나서 식초를 찾는 사람이 많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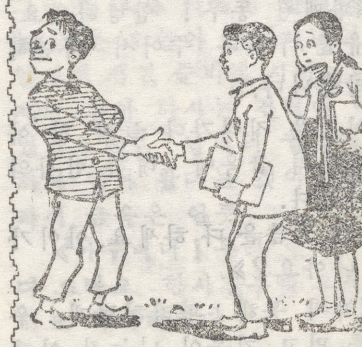
이윽고 상점을 나서는 금옥의 가슴은 이 하루도 인민을 위하여 일할 기쁨으로 대구 부풀어 오르는 것이였다.

조 경 직

경우에 따라서는?



윗 사람을 대하면…



아래'사람인 경우에는…

로력에서 얻은 행복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쏘련 공청원—

오늘 쏘련 청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쏘련 청년들의 행복한 생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간고한 로력과 창조적 로동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 건설 시기의 쏘련 청년들의 투쟁과 생활을 보자!

× ×

쏘련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 시기로 들어 선 것은 1926년부터이다. 쏘련 공산당은 국가 사회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의 위대한 계획을 내 놓고 여러 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점차로 락후한 농업국으로부터 강대한 사회주의 공업국으로 만들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매우 힘든 과업이였다. 왜냐 하면 당시 쏘련에는 방대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건설 자금도, 기술적 토대도, 건설 인재도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쏘련은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사회주의 나라였던만큼 쏘련을 포위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은 쏘련에 아무 것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여 그의 건설 사업에 대하여 온갖 파괴 공작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공청원들 앞에 거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기하였다. 수많은 쏘련 청년들은 공산당과 레닌 공청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하여 나섰다. 1929년에 레닌 공청의 호소에 응하여 20여만명의 공청원들이 국가 건설의 가장 필요한 일터로 나갔다.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공업 건설에 참가한 쏘련 청년들의 앙양된 열정은 마그니또골쓰크의 건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쏘련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여기에다 거대한 강철 공장을 건설하였다. 이 공장은 잡초가 우거진 마그니또 산록에 건설되였는데 공사는 매우 간고하였다.

마그니또골쓰크 공사에 착수한 첫 시기에는 약 50명의 공청원밖에 없었는데 1년 반이 지난 후에는 쏘련 각지에서 모인 1만 2천 여 명의 공청원들이 일했다.

청년 돌격대는 매 건설 공사

장 마다에서 조국을 위한 로력과 재능으로 모진 난관들을 극복하였다. 용광로 건설 작업은 령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중단됨이 없이 진행되였다.

증기기를 장치할 때 외국 사람들은 61일이 걸린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년 돌격대는 20일 동안에 임무를 완수했다. 우랄강의 땜을 건설할 때 외국 고문은 적어도 5개월이 걸린다고 했지만 청년 돌격대는 그 기간을 2배나 단축하였다.

사회주의 건설 시기 쏘련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공사장에는 언제나 공청원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간주하였다.

1933년 모쓰크바 지하 철도 공사가 시작되였다. 이 공사는 지하에서 진행되는 만큼 매우 힘든 로동이였다. 그러나 당이 한번 호소하자 각지에서 청년들은 구름같이 모여 들었다. 공사에 참가한 1만 5천 5백만명의 선진 로동자중 1만 3천명이 공청원이였다. 그런데 공사에 동원된 공청원들은 가장 우수한 돌격대원들이며 허다한 사람들은 공청 비서들이며 공청 초급 단체 위원들이였다. 그들은 과거에 광부 노릇을 해 보지도 못했고 복잡한 기술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청춘의 정열과 고상한 책임감으로 새 기술을 빨리 습득하여 건설 속도를 부단히 높이였다. 수평 갱도를 팔 때 5월분의 진도는 13메터였다. 그런데 6월에 와서는 기준량을 20메터로 높이였다. 그러나 이달 첫 10일 동안에 자기 임무를 1배 반으로 초과 완수하였기 때문에 기준량을 다시 60메터로 높였다. 공청원들은 90메터로 기준량을 높일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6월 말에 실제 도달한 굴진 속도는 112메터였다.

사회주의 건설 시기 쏘련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그 어느 부문이나를 막론하고 로력에서 창조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새 발기자로 나섰다. 우리들이 잘 아는 돈바쓰 청년 탄부 쓰따하노브가 발기한 쓰따하노브 운동도 바로 이 시기에 벌어졌다. 그는 1935년의 국제 청년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1교대 시간에 콘푸레쏜으로 1백 2톤의 석탄을 캐내여 당시 채탄량의 보통 규준을 14배나 초과하였으며 선진 자본주의 국가 규준을 9배나 초과하였다. 쓰따하노브의 발기는 광범한 청년들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례를 들면 자동차 공업에 있어서 청년 단야공 뿌쉬낀은 27초 동안에 주축(主軸) 한 개를 단조하였다. 당시 미국의 기업소에서는 그의 기준량이 36초였다.

방직 공업에서 녀성 공청원 위노그라도바가 지도하는 녀성 직포 로동자들은 매명이 144—148대의 직포기를 관리할 수 있었다. 당시 미국의 방직 로동자는 보통 겨우 50—60대의 직포기를 관리하고 있었다.

실로 쓰따하노브 운동에 참가한 공청원들은 낡은 것을 반대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보다 훨씬 높은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했다. 쓰따하노브 운동은 쏘련의 사회주의 경쟁을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로 끌고 나갔다.

쏘련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 기술 인재가 매우 부족하였다. 당시 쏘련의 기술 수준은 비약적으로 발전되는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건설된 쓰딸린그라드 뜨락또르 공장은 원래의 생산에 의하면 5분 동안에 뜨락또르 한대씩 생산하게 되였다. 그런데 조업을 개시한 첫 달에 겨우 다섯대의 뜨락또르밖에는 생산하지 못했다. 이 원인은 아무런 기술도 못가진 농촌에서 갓 들어온 로동자가 이 공장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런 형편에서 새로운 생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첫째가는 일로 되였다. 이런 사정은 다른 새 기업소에도 있었다.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것—이것은 쏘련 청년들의 고상한 애국적 임무였다.

당의 호소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선 쏘련 청년들은 전국 각지에 로동자 전습반을 설치하였다. 레닌 공청의 발기로 허다한 기업소에서는 각종 기술 학습망을 설치하였으며 《기술 고문 전람회》, 《기술 야회》와 《기술의 날》 등을 조직하였다. 공청 단체는 공청원들의 기술 수준 제고에 노력하였다. 1933년 우랄 중형 기계 제조 공장의 공청 단체의 창의에 의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청년 기술 로동자에 대한 기술 시험을 실시하였다. 1년 반이란 짧은 기간에 120만명의 청년 로동자가 전 쏘련 기술 시험에 통과하였다.

쓰딸린그라드 뜨락또르 공장 공청원 쎄로며나는 1931년에 이 공장 주조 직장에 배치되여 왔다. 그는 농촌에서 자랐으므로 공장이라군 본 일도 없었다. 때문에 직장에 처음 나갔을 때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가 하는 일은 심형(心型)을 만드는 것이였다. 그러나 그의 브리가다에서 함께 일하는 녀성 청년들도 기술 수준이 낮았다. 그래서 구락부 문앞에는 그들의 락후한 사업을 비판하는 풍자화—라타가 걸려 있었다. 그러나 쎄로면

나는 락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술을 배웠다. 최근 후에는 로동자 학교에 가서 공부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심형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그는 돌격대에 가입하여 《락다》의 치욕을 씻어 버렸고 후에 그는 공장의 돌격대 대장으로 되였다.

농촌의 공청원들도 기술 습득에서 공장 청년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농업 집단화 시기에 농촌에서는 많은 지식 청년들이 농업 생산 사업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였다. 1930년 부터 1934년에 이르는 기간에 7년제 학교를 졸업한 12만명의 지식 청년들과 공청원들이 농촌에 진출하여 일하였다.

쏘련의 농촌 청년들도 과학 기술 습득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허다한 농촌 청년들이 자습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하였다. 차골쓰크구 《로동》꼴호즈 위원장 호데노브가 그의 좋은 실례로 된다. 그는 빈농 출신 청년으로서 처음 꼴호즈 위원장으로 되였을 때에는 아무 경험도 없었으며 공부라곤 도무지 3년밖에는 하지 못하였다. 꼴호즈의 복잡한 사업을 지도하는 가운데서 그는 학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는 매일 저녁 일을 끝마친 다음 두 시간씩 짜내여 학습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 그는 큰 곤난에 부다쳤다. 그것은 3년밖에 학습하지 못한 그의 학력을 가지고서는 책을 읽고도 리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는 거의 매줄 마다 읽고 나서는 오래 오래 생각하군 하였다. 그래도 모르는 것은 따로 베껴 두었다가는 묻군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책의 내용을 점차 리해할 수 있었다.

농업 생산에 참가한 쏘련 청년들은 자기들의 완강한 노력을 통하여 당이 제시한 과학 기술을 습득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완수하였다. 1931년부터 1934년에 이르는 기간에 2백 50만명의 새로운 농업 기계 운전수들이 나타났는데 그 중 80% 이상은 모두 청년들이였다.

사회주의 건설 시기 특히 초기의 쏘련 청년들의 생활은 아주 간고했으며 소박했다.

쏘련의 사회주의 공업화는 중공업부터 시작했던만큼 모든 것을 우선 중공업에 돌려 아껴 먹고, 아껴 써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사회주의 건설의 최고 리익에 복종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당시 쏘련 인민들은 의, 식, 주 생활에서 막대한 곤난을 참고 견디여내야 하였다. 당시 쏘련 청년들은 소박한 것을 미덕으로 보고 사치한 것을 수치로 여겼다.

당시 쏘련 청년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자기들의 곤난한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어떤 작은 도시(뻬르모)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 1930년 7월에 위대한 작가 고리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오늘 아침 나는 동무들과 함께 쓰라린 맛을 보았습니다. 물론 당신도 알겠지만 지금 빵 문제 (그리고 공업품 문제도)는 아직 잘 해결되여 있지 못하며 변강의 도시에서 더욱 그러 합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들은 열두시가 될 때까지 아직 아침을 먹지 못했습니다. 두 식당은 문이 닫혔고 다른 한 식당에는 사람들이 비켜 설 자리 없이 빽빽히 늘어 섰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 먹을 곳이라군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배가 꽤 고프겠지만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몹시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몹시 들끓어 오를 때 《모든 가지가지의》 생각이 머리 속에서 마치 비오다 멎은 후 벌레가 기여 나오듯 기여 나왔습니다. 어떤 물건으로 그것들을 억누르고 죽이고 독사시켜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물질적 식물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정신상의 《약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나는 시립 도서관에 달려 가서 많은 잡지들을 읽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의 달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나는 아침에 생각하던 그런 모호한 사상이 정말로 한심하고 수치스러움을 저절로 느끼게 되였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이런 《농업 기계 제작소》, 《뜨락또르 제작소》, 《드네쁘르 건설장》 및 기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축 사업들의 위대함에 비하여 그 얼마나 무의미하며 보잘것 없는가!

…나의 정서는 개변되였습니다. 《옳지 못하다》, 《우리의 곤궁은 바로 우리가 풍부해 간다는 증거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집단의 내용을 자기의 《나》 내용으로 되게 하며 집단의 규률을 자기의 규률로 되게 하며 집단의 장성을 자기의 발전으로 되게 하며 집단의 기쁨과 성과를 자기의 기쁨과 성과로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당시 쏘련 사람들은 소박한 목조 가옥에 살면서 마루' 바닥에서 잤다. 뿐만 아니라 아궁에 지필 나무도 없었으며 밥도 매끼 배불리 먹지 못했다. 그러나 쏘련 청년들은 난관에 누구하나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와는 반대로 난관속에서 이루어질 행복한 미래를 바라 보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 전 쏘련 청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처녀지 개간에 참가한 공청원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쏘련의 남녀 청년들은 언제나 안일한 생활을 탐구하지 않았다— 우리의 공산당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교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앞에 놓인 위대한 목적을 똑똑히 내다 보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 투쟁할 것이다》

권력 쟁탈을 일삼는 남조선 《국회》

김 창 주

리 승만 괴뢰 《국회》가 미제 총검의 위협에 의하여 조작된 미제의 조선 침략 도구이며 그의 총검의 비호없이는 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미제의 괴뢰이라는 것은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 괴뢰 《국회》를 어떻게 조작하였는가를 돌이켜 보기만 하여도 넉넉할 것이다.

리 승만의 사설 테로단 따위는 셈속에 넣지 않고서라도 미국제 륙 해 공군과 6만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거리와 골목에는 기관총 구멍이 사람들의 가슴을 노리고 땅크가 으르렁댔다. 하늘에는 이 역시 미국제 비행기가 날랐다.

이것이 바로 1948년 5월 9일과 10일, 남조선 전역에 전시 상태가 선포되였던 일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기억에 생생하리라!

거리와 마을마다에 무장 경관과 테로단들이 횡행하고 《선거자》들을 마구 몰아냈다. 대기하고 있던 미국 트럭들이 《선거자》들을 강제로 운반했었다.

과연 이렇게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리 승만 괴뢰 《국회》에 단 한명의 로동자, 농민의 대표도 참가하지 않았다하여 그 아무도 놀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 그 《신성》한 《국회》가 리 승만을 두목으로 하는 《자유당》과 야당들간의 권력 쟁탈을 일삼는 반인민적 모리장으로 되고 있는것 역시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국회》란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여 왔는가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것은 먼 지난날은 고사하고라도 지난 1954년에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이지만 종신토록 《대통령》의 룡상에 눌러 앉아 1인 독재의 불호령을 목이 갈리도록 쳐보자는 리 승만이 《4사 5입》의 《헌법 개정》을 조작해 낸 것은 이 역시 누구의 기억에도 잊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남조선 인민들의 마음은 애당초 이따위 《헌법 개정》에는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들의 처지가 언제나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절박한 일념만이 있었을 뿐이였다. 그러나 리 승만에게는 이런 인민의 념원이야 어찌 되던 《대통령》의 룡상을 차지하는 것만이 가장 관심되는 문제였던 것이다.

또한 이《국회》는 겨우 1955년 1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따름이였고 그외에는 지개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불상 사건》을 중심으로 여당과 야당 《국회》 의원 간의 개싸움이 벌어졌을 뿐이였다. 회의를 거듭하는 《국회》가 모두 그러했다. 여기에서 통과되는 법률안이 있다면 그것은 《헌법 개정》이거나, 《정부 조직법 개정안》, 《지방 자치법 개정안》 및 《재 개정》등 리 승만 1인 테로 독재의 유지를 위하여 《개정을 요하고 또 재 개정을 요하는것》 뿐이고 이른바 《민생 문제》에 관한 것이 있다면 기어코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탈과 기만과 롱락을 위한 것이였을 따름이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령락되여 가고 있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테로 통치하의 10여 년간에 남조선 인민들은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입었다. 우리들이 어찌 최근 남조선 일대를 휩쓸고 있는 남조선 절량 농가들의 아우성 소리들을 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백주에 뻔뻔스럽게 강도질한 미군에 대한 저 파주 인민들의 구천에 사모치는 분노의 목소리를 잊을 수 있겠는가? 만백성의 고혈을 흡혈귀처럼 빨아 삼키는 이 승냥이의 무리들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리 도령—리 몽룡이 《금존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 (량반 관료배들이 마시는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놈들이 먹는 진수 성찬은 만백성의 기름이란 뜻) 라고 한 풍자시는 비단 리조 량반 계급에게만 던져진 화살이 아니라 오늘의 리 승만 도배에게도 던져진 준엄한 심판의 비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남조선 인민들이 자기의 심장으로 공명하게쯤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건만 리 승만 역도들은 인민들의 사모치는 원성과 절박한 요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그런 것엔 아랑곳없이 《국회》 내에서 자기들의 정권 쟁탈을 위하여 개싸움만을 일삼고 있다.

작년《정, 부통령》 선거 때만 하여도 리 승만의 유일한 정적인 《민주당》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반미 감정과 리 승만에 대한 원성을 리용하여 정권을 쟁탈하려 하였으며 리 승만이는 또 자기대로 종신 대통령을 위하여 《민주당》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벼라별 추악한 아귀다툼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리 승만이 별별 추악한 짓을 다하였건만 선거 결과는 명확하였다. 비록 리 승만이가 미제의 총검의 비호하에 상투적인 테로와 류례없는 사기 협잡으로 《대통령》의 롱상에 눌러 앉기는 했으나 인민들로부터의 고립이 더할나위없이 심해졌었고 더우기 《부통령》 자리는 《민주당》의 장 면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선거》에서 사실상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된 이 늙은 개는 개코 망신을 당하였다.

이렇게 개코 망신 하고서도 그식이 장식으로 이 늙은 개와 《자유당》 졸개들은 제버릇 개에게도 주기 싫어 하였다.

또다시 들고 나온《헌법 개정》—이번에는 리 승만이 죽은 뒤에 그의 독재권을《민주당》 출신인 장 면에게 넘겨 주지 않기 위하여《부통령》이 잔여 《대통령》의 임기를 자동적으로 계승하기로 된 현 《헌법》을 뜯어 고치자는 의견이《자유당》에서 나왔다.

가라사대—《부통령》은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 궐위시에 그 임기를 계승한다고——

그러나 헌법을 뜯어 고치는 일이 하루'밤 사이에 될상 싶지도 않고 해서 리 승만이가《자유당》의 어둑컴컴한 막뒤에서 고안해 낸 것이 겨우 《부통령》 장 면을 없애치우자는 것이였다. 그래서 작년 백주의 서울 한복판에서《부통령 장 면 저격 사건》이 생긴것까지는 좋다고 하겠으나 쥐도 새도 모르게 해치자던 노릇이 법정에서 범인의 입으로 낱낱이 실토됨에 이르렀어야 개코 망신 정도가 아니였다. 그래서 리 승만의 테로 전술의 정체가 또 다시 폭로되고야 말았다.

호시 탐탐 정권을 노리고 있던 《민주당》 역시 이렇게 생명을 노리는 리 승만의 도전을 받고만 있을 수는 없게끔 되였다. 그래서 국회내에서 또 례의 개싸움이 벌어진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은 리 승만 도배의 학정이 빚어낸 악결과들을 들어 공격의 화살을 퍼붓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되여 《국회》 의원 58명이 금년 1월 《국회》 에서 리 승만에 대한 경고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물론 《정, 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놈들의 정권 쟁탈 싸움의 일부에 불과하다. 오늘 여, 야간의 정치 싸움은 명년 실시될 제 4회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6월11일의 《국회》에서만 하여도 시종 개싸움으로 그 회의가 일관 되였었다. 《민주당》은 명년 선거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또다시 괴뢰 정부와 《자유당》을 공격하고 리 승만의 파쑈 전횡을 규탄하였다. 여기서 《민주당》에게 있어 절호의 리용물로 된 것은 다름아닌 수백만을 헤아리는 절량 농민들이고 몰락당한 중소 기업자들, 홍수를 이룬 실업자군이다. 신이 나서 리 승만을 공격하다가 장 택상이 리 승만을 가리켜 《식민지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고 규탄함에 이르러 《국회》 의사당은 일대 수라장을 이루었다. 이 국회 소집의 중요한 리유가 《절량 농가 구호 대책》을 비롯한 일련의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 야 할것 없이 이것은 아예 제쳐 놓고 소위 《정치》 싸움에 《국회》를 리용하였다.

이와 같이 리 승만 괴뢰 《국회》는 정권 쟁탈의 모리장이다. 오늘 국회내에 여당과 야당간의 개와 고양이 싸움도 날이 갈 수록 더 심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제놈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는 서로 아웅다웅 거리기만 하는 이 싸움질 잘 하는 개와 고양이도 일단 나라를 팔고 인민을 못살게 구는데 있어서는 어느덧 의좋은 쌍둥이로 되여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나발을 불며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그점이다.

바로 지난번 미국 상전들에게 나라를 통털어 팔아 먹기 위한 악명 높은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할 때만 하여도 놈들은《국회》내에서 맞장구를 치며 이를 찬성하였다. 그 어느 놈이고 미국 상전들에게 이마를 쪼아리며 아첨을 하고 인민을 억압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는 신통히도 닮은 꼭 같은 쌍둥이다. 이것은 결코 괴이한 일이 아니다. 이상 몇가지 례증한 바와 같이 리 승만《국회》는 철두 철미한 매국적인 반인민적 괴뢰도구이다.

미제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되였고 미제의 총검으로써만 잔명을 유지하고 있는 리 승만 《정권》이 미제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파쑈 경찰 테로 통치의 발광적인 강화에 그의 운명을 내여 맡기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는 것은 론리 당연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 역도들이 자기가 베린 칼에 자기가 망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랴!

한 의거자의 이야기

박 환

6월의 미풍이 아까시야 록음을 사르르 스치고 지나간다. 을밀대를 굽이 돌아 모란봉 기슭에 이르는 유보도를 포장하기 위하여 송도.정치 경제 대학 학생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곡괭이와 삽질을 하고 있었다.

《앗다, 피스톤처럼 족쳐 내세 그려》해'별에 끄슬려 거무틱한 얼굴에 호탕한 웃음을 띄며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목 언저리와 굵은 심줄이 얼기설기한 팔뚝에는 여러가지 먹무늬와 함께 근육이 이즈러진 자리가 얽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수난에 찬 지난날의 사연을 말해 주는듯 싶었다.

휴식을 알리는 류량한 라팔소리가 났다.

나는 아까 호탕하게 웃으며 류별나게 일'손이 빠르던 학생이 동료들 사이에서 《령감태기》라고 불리운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쉬고 있는 나무밑에 다가갔다. 그와 나는 풀밭에 가즈런히 마주 앉았다.

《동무가 공화국 북반부에 들어 오게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 줄 수 없을가요?》

나는 이렇게 말머리를 열었다. 그런데 유쾌하고 호탕해 뵈던 그는 막상 나와 마주 앉자 어덴가 그늘진 데가 있어 자주 고개를 수그리며 무거운 침묵에 잠기였다.

《서 광택이 어서 이야기해 보게! 동무네 가족들이 어떻게 미국놈들에게 무참히 살해되였는가를 죄다 이야기 하게…》

그의 곁에 앉은 처녀처럼 상냥한 학생이 그의 옆구리를 가볍게 찌르며 서둘러 말하게 하는 것이였다. 이윽하여 서 광택은 애한에 찬, 흘러 간 지난날을 회상하듯 먼 하늘을 바라 보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였다.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 지리산 기슭의 쓸쓸한 산촌였습니다. 부모들은 사시장철 삼베옷에 무릎을 드러내 놓고 돌밭을 번져도 늘 식구들은 굶주림에 창자를 움켜 쥐였지요.

아버지는 50 평생을 땅에 오금을 박고 허리를 펴지 못하였으나 식솔들은 풀죽으로 연명했습니다. 나와 누이 동생 영희는 보리'고개 때면 늘 도토리와 나무껍질을 찾아 산발을 헤매노라고 열손톱이 죄다 빠개지군 하였답니다.

참 억울하고 침통한 세상이였습니다. 글쎄 보리'고개를 겨우 살아나면 뭘 합네까? 가을이면 쭉정조와 콩 몇석 거둬 들이는 산'골 농사인데두 미군과 괴뢰군놈들은 총 칼로 위협하며 낟알을 몽땅 긁어서 공출시키군 하였지요…

그때 흰 테두리 철갑모를 비스듬히 눌러 쓰고 시꺼먼 로이트 안경을 낀 미국 헌병들이 백골부대놈들을 앞장 세우고 사냥'개처럼 조석으로 우리 마을을 싸다녔어요…

아랫'골에 주둔하고 있은 미군 헌병놈들은 행여나 빨찌산들을 붙잡아볼가 해서 말입니다.

나의 량친과 누이 동생이 그 놈들에게 살해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8년전 어느 소슬한 가을날이였습니다. 해마다 산사태에 흉년이 들었으나 그해 가을에는 유별나게 우리네 산'골에도 풍년이 찾아 왔어요…

〈올해는 숨을 좀 쉬여 보겠군…〉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가을걷이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조 이삭을 비벼 맨든 도시락을 정성껏 이고 누이 동생 영희의 손'길을 잡고 밭으로 찾아 왔지요.

오래간만에 우리 식구들은 조밥을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란도 순식간의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얼마간 떨어진 잣나무 숲속에서 쇠된 휘파람 소리와 함께 미군 헌병 두 놈이 사냥'개를 앞세우고 얼핏 달려 가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몹쓸 녀석들이 또 우리를 해치려고 저러는게지! 귀신도 눈이 빠졌지 저런 백정놈들을 그냥 둬 두다니 원…〉

노상 빨찌산을 없앤다고 산마루마다 뒤지며 불 지르는 미국놈들의 소행을 아버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치 콩밭머리에 혼자 가서 땅에 떨어져 있는 콩알을 줏어 산비둘기에 먹이고 있는 영희를 이리 오라고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마침 이때 탕! 하는 총성이 메아리쳐 울리였습니다. 그러자 방금 미군놈들이 달려간 쪽에서 사냥'개 짖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잣나무 숲머리 우로는 산비둘기떼가 후두둑 날아 갑니다. 빨찌산을 찾아 눈알이 시뻘게서 다니다가 이렇게 산비둘기 사냥을 일삼는 것은 놈들의 심심풀이였지요.

참말로 기막힌 일입니다. 그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영희가 재차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우리께로와 방금 앉을려고 하는데 콩밭머리께 사냥'개를 따라 미군놈들이 불쑥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는 한 녀석이 걸음을 멈추자 사냥'개도 걸음을 문뜩 멈추고 피에 주린듯 송곳 같은 날카로운 이'발을 희번덕이면서 혀를 내빼고 숨을 헐떡거리였습니다. 죄 지은 것은 없으나 우리는 어쩐지 겁이 나서 얼굴이 새파래 가지고 몸을 옹송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능글스러운 웃음을 담고 우리를 한동안 치여다

보던 사냥'개 목줄을 잡은 녀석은 갑자기 눈'섭을 치켜 올리면서 무어라고 빽 소리치며 한손을 엇비슷이 공중에 내려 칩니다.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얼핏 영희께로 시선을 돌리며

〈영희야, 그 비둘기 내버려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희는 머루알같은 눈에 질겁한 빛을 낼 뿐 비둘기를 가슴에 꼭 껴안으면서 그냥 미군놈들만 놀라운 얼굴로 바라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재차 소리치자 이번엔 영희의 눈에 잔 이슬이 맺힐 뿐 비둘기는 그의 가슴에서 여전히 구구거리는 것이였습니다.

선생님 만일 이때 영희의 바로 곁에 앉아 있던 내가 그의 가슴에 꼭 안겨 있는 비둘기를 내려쳤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였는지 모를 일이지요≫ 서 광택의 가슴은 별안간 불어 올랐다. 그는 모둠숨을 내쉬면서 한동안 대동강 푸른 물'결에 시선을 박고 있다가 원한에 사무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닙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미군놈들은 나의 아버지 말씀대로 인간 백정이며 악마이니까요. 사냥'개 목줄을 잡은 녀석은 다시 한번 고함질 치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아버지가

〈영희 이년아, 그걸 놔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벌써 때는 늦었지요. 목줄을 잡은 녀석이 그것을 놓자 사냥'개는 쏜살처럼 달려 왔습니다. 그러자 비명이 오르고 영희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벌써 8년전 일이지만 나는 그때의 처참했던 광경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치가 떨리고 가슴에 불이 붙어 도저히 말을 이을 수가 없지요≫

그는 아까부터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기만 하던 담배에 불을 부쳤다.

불꽃은 자주 방긋방긋 하다가 제시간동안 다 타지 못하고 우리의 발밑 잔디우로 날아갔다. 서 광택은 아무리 눈물을 참으려 해야 그럴 수 없는것 같았다. 그는 흙 먼지가 뽀얗게 앉은 손잔등으로 한눈을 쓸면서 더듬더듬 말을 이었다. ≪영희의 가슴은 온통 선지피로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작은 가슴우에서 역시 사냥'개의 이'발에 잔등을 물린 비둘기가 몸을 움지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자기의 목께로 비둘기를 꼭 껴안은 바람에 비둘기는 영희처럼 순식간에 목숨이 끊어진 것은 아니였지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까무라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불쑥 일어나 주먹을 돌덩이처럼 틀어 쥐고 미군놈들을 노리였습니다. 그놈들은 사냥'개의 ≪승리≫에 자못 만족한 듯 마치 복받은 사람처럼 얼굴에 미소를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짐승처럼 부르짖으면서 미군놈들께로 달려 들었습니다. 이 때 총소리가 나고 아버지가 쓰러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뒤 섰기 때문에 총알을 피하여 한놈의 가슴팍에 주먹질을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나는 인차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내가 저녁때 눈을 떴을 때는 나는 어둑 컴컴한 방안에 갇치워 있었는데 거기엔'우리 동네 여러 어른들과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의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 오지 못할 사람이 되였다는 것과 그리고 그날 미국놈들은 나의 아버지가 빨찌산이라는 엉터리없는 딱지를 부쳐 우리 동네를 불살아 버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한달 남아 취조를 받으면서 갇치워 있었습니다. 이 때 동네 사람들이 몰래 들여다 주는 초약을 써서 나는 총알에 뚫린 어깨쭉지를 아물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복새통에 며칠을 더 살지 못하다가 운명하고야 말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미국놈들은 우리를 놓아 주더군요. 허나 우리의 발'길은 집에 닿지 못하고 그길로 ≪국군≫에 끌려 갔습니다. 그리하여 가진 학대와 모멸을 당했지요. 그러다가 더는 치욕적 생활을 참을 수 없어 북두 칠성을 바라다 보며 월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서 광택의 말은 끝났다. 그에게서 이 이상 더 무슨 공화국 북반부로 넘어 오게 된 사연을 들을 여지가 있으랴.

그가 이야기하는 동안 소나기라도 쏟을 듯이 갑자기 하늘을 덮었던 먹장 구름은 또 갑자기 벗어지면서 찌는 듯한 해'별이 쨍쨍히 내려 쪼인다. 대동강의 영원한 흐름도 여전히 고요하며 물'빛은 잔잔한 호수의 그것과도 같이 한결 선명한 푸른 빛으로 아름답다. 우리의 눈 아래선 복장을 단정히 한 소년 소녀들이 함박꽃처럼 활짝 핀 웃음속에서 우르륵 몰켜 강 기슭으로 내린다. 아마 무슨 강놀이를 꾸미려 가는 길인 모양이다. 강 기슭에 닿은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듯 빨간 테―프로 발을 맨 옥색 비둘기 두 마리를 강우로 날린다. 그러자 비둘기는 강심께까지 푸드득 나래치며 가다가 불쑥 머리를 돌이어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 오른다. 그것은 이윽하여 우리의 머리우로 날아 왔다가 저리 을밀대 쪽으로 갔다. 서 광택의 눈초리는 줄창 그 비둘기를 좇고 있었다. 그리고 푸른 하늘가에 그것이 아물아물 해지자 눈'길을 떼고 정중하고도 낮윽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였다.

≪저 비둘기를 보니 영희 생각이 간절하군요. 참 비둘기를 좋아 하던 애랍니다. 그래서 한번은 내가 우정 짬을 내서 잡아 준 산비둘기가 인간 백정들의 손에 걸려 영희의 품속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눈을 감은 바로 그 비둘기였습니다. 허나 비둘기는 암만이라도 있지요. 저렇게 창공을 자유롭게 날면서 평화를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서 광택의 손'길을 따라 보니 어느새 아까의 그 비둘기는 을밀대를 넘어 이리로 오고 있었다.

날강도 (남 조선 에서)



장 기복 그림

8월의 광장 에서

김 동 전

몇해만의 상봉이냐
팔월의 광장에서 만난 두 친구
어떤 연고로 헤여졌더냐
얼싸 안고 볼을 맞부비는 두 친구

한 젊은이는 땅크모를 쓰고
또 한 젊은이는 로동복 그대로나
경상도 사투리 고향말 한말씨로
그리운 고향을 추억는구나.

그대들의 부모님 머리엔 서리도 앉었으리
풀피리 어린 시절 벗들도 많으리
허지만 그들은 단둘이 만났구나
행진하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승리의 기'발속에

마주 보고 뜨거운 눈물 흐르며
  마주 보고 웃으며
먼 전투의 로정에서 변한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고향을 보는듯 싶구나.

이렇게 만나면 할말도 많으련만
두 젊은이 말문이 막히였다.
누가 죽고, 누가 살고 물어 무엇하리
보고 싶은 사람들을 외워 무엇하리

아, 언제나 가고 싶은 고향이언만
젊은이들은 고향을 묻지 않는다.
새로운 미국제 전쟁 무기에
산천도 몸부림 칠 고향이기에

팔월의 뻐국새도 숨을 죽이고
원쑤를 저주하는
아,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이 승리의 광장을 애타게 그릴 것이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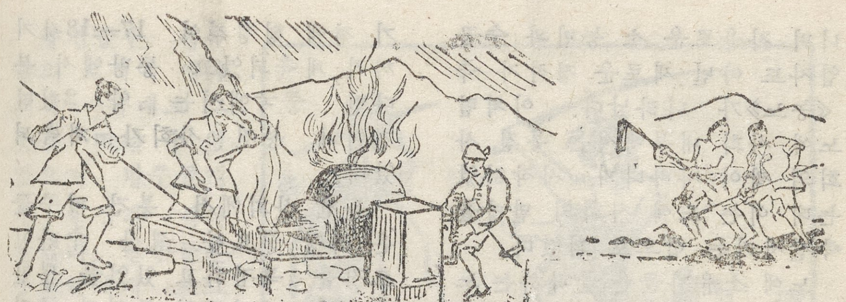
승리의 행진이 시작된다.
한 젊은이는 땅크에 오르고
또 한 젊은이는 도표판을 들고
영광의 로대앞을 지난다.

승리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고향의 젊은이들 희망은 푸르렀으나
보이지 않는구나 친구들이여!
그대들은 지금도 고향을 지켜 싸우는가

아, 같이 걷고 싶구나
위대한 조국에 축하를 드리며……
그날을 위하여 잘 싸워달라
사랑하는 고향 친구들이여!

—1957. 8





사회 발전 이야기

(봉건 사회편 1)

노예 사회가 멸망한 후 인류 사회는 봉건 사회로 들어 섰다.

봉건 사회도 노예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혹한 착취 사회였다. 그러나 봉건 사회는 노예 사회에 비하여 일층 발전된 사회 제도이며 생산 관계와 착취 형태도 노예 사회와는 달랐다.

그러면 봉건 사회는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노예 사회편에서 본 바와 같이 노예 사회는 노예를 부단히 생산에 인입함으로써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대량적인 노예 보충은 전쟁에 의하여서만 가능하였다. 그런데 전쟁에 참가하는 군대의 중요 성원인 소 농민과 수공업자들은 노예 소유자들의 압박과 착취, 계속되는 전쟁과 과중한 세금 등으로 인하여 나날이 몰락하여 류랑민으로 되여 버렸다. 이와 같이 소 농민과 수공업자들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노예 소유자들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되였다.

결과 노예 사회 말기에 이르러서는 노예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히고 게다가 그칠줄 모르는 노예 폭동으로 노예들의 수는 점점 줄어 들어 노예의 값이 대단히 비싸지게 됨으로써 노예 소유자적 대규모 생산은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게 되였다. 그리하여 노예 소유자들은 토지를 세분하여 노예들과 자유 소 농민들에게 일정한 조건 밑에 넘겨 주었는데 노예들은 토지를 빌려 받은 대'가로 전 수확의 6분지 5, 심지어는 10분지 9에 달하는 곡물을 노예 소유자들에게 바치지 않으면 안되였었다.

이리하여 노예 사회 말기에 이르러 이전과 같은 노예도 아

니며 자유로운 소 농민과 수공업자도 아닌 새로운 경작자 즉 《농노》가 나타났다. 이처럼 노예 사회 내부에서는 봉건 사회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노예 사회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힘으로 되였다.

노예 소유자들은 몰락하는 노예 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노예 폭동을 가혹하게 진압하고 수 많은 노예들을 학살하군 하였다. 그러나 자기의 해방을 위하여 궐기한 노예들의 폭동은 노예 사회를 멸망케 하였으며 인류 사회는 봉건 사회에 들어 서게 되였다.

그런데 봉건 사회가 계속된 시기는 매개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다. 구라파에서는 봉건 사회가 대체로 기원 5세기 경에 형성되여 17—18세기까지 계속되였고 동방에서 본다면 중국에서는 약 2천년간이나 봉건 사회가 계속되였다.

봉건 사회에서 봉건 령주들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인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특권과 국가 권력을 리용하여 농민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략탈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노예 사회가 멸망한 후 자기 땅을 가지고 있던 자유 소 농민들은 당시 봉건 령주들 사이에 빈번히 일어나는 전쟁에 시달리고 게다가 높은 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 나갈 수가 없었다.

봉건 령주들은 농민들의 이러한 처지를 리용하여 소위《보호》하여 준다는 허울 좋은 구실 밑에 농민들을 기만하여 그들의 토지를 모조리 빼앗았다. 이리하여 봉건 령주들은 더 많은 토지를 가지게 되였고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의 주인으로서 수 많은 농민들을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있었다.



※농민들은 높은 조세를 물어가면서도
※부득히 령주들의 토지를 부쳐야 했다

농민들은 령주들의 토지에 예속되여 마음대로 그곳을 떠날 수 없었으며 령주들에게 완전히 매여 살았다. 령주들은 농노들에게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재판에 부치여 잔인한 방법으로 처벌하군 하였다.



※농노들은 갖은 고문을 당하였다

그러나 농노는 노예보다는 자유로웠다. 그들은 령주의 토지를 빌고 있기 때문에 비록 토지에 예속은 되여 있었지만 령주가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봉건 령주들은 복잡한 신분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리용하여 농노들을 꼼짝 못하게 하였다. 신분 제도에 의하여 낮은 신분에 속한 자들은 귀족이나 지주 등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였으며 납세, 부역 등 무거운 국가적 의무를 혼자 걸머져야 하였다.

우리 나라 리조 봉건 국가에도 사람들을 량반, 상민(량반, 천민)으로 구별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 소위 량반 신분에 속하는 자들은 봉건 령주들이였으며 리조 봉건 국가의 통치 계급이였다. 량반들은 온갖 국가적 부담에서 면제되였으며 자기의 관직과 특권을 리용하여 농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그러면 봉건 령주들은 농노를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봉건 사회 초기에 있어서 첫 착취 형태는 부역 제도였다. 즉 봉건 령주들은 토지를 두 부분으로 갈라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나쁜 것은 농노들에게 빌려 주었다.

토지를 빌려 받은 대'가로 농노들은 1주일이면 3일이나 2일만을 자기의 농토에서 일하고 나머지 4—5일은 자기의 농구와 축력을 가지고 령주의 농토에서 일하였다. 그러나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령주들이 독차지하고 농노들에게는

아무 것도 차례지지 않았다.

이런데로부터 농노들은 자기 농토에서 일할 때는 열성을 내서 일하였으나 령주의 토지에서 일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을 태공하였다. 그래서 령주들은 농노들이 일하는 것을 엄격히 감시하고 만일 그들이 일을 태공할 때에는 채찍과 몽둥이로 사정 없이 때리거나 또는 억압적으로 벌금을 받군 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감독만으로써는 농노들을 열성적으로 일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 령주들은 부역 대신에 자기의 토지를 전부 농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서 매년 추수 후에 일정한 소작료를 받는 방법으로 농노들을 착취하였다. 말하자면 착취 형태를 부역 제도로부터 소작 제도로 바꾸어 놓았을 따름이다.

소작 제도는 부역 제도에 비하여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놀았다.

즉 소작 제도 하에서는 농노들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자기들에게 리익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개량하거나 더 쓰기 좋고 능률적인 농기구를 만들어 내는데 힘썼다. 결과 농업 기술이 보다 발전하게 되고 그에 따라 농업 생산도 현저히 발전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소작 제도 그 자체도 농노들의 생활을 좋게 만든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 하면 소작 제도는 봉건 령주들이 농노들을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착취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것이지 결코 농노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봉건 제도 하에서의 소작 제도는 아주 가혹한 착취 형태의 하나였다. 즉 농노들은 전 수확량의 절반 이상, 혹은 9할 정도의 소작료를 령주들에게 납부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비



※농민들은 령주들에게 높은 소작료를 물어야 했다

록 농업 생산이 발전하긴 하였지만 농노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나빠질 뿐이였다.



※농민들은 강제 부역을 강요당했다

게다가 농노들은 소작 제도가 생긴 후에도 계속 강제 부역을 강요당하였다. 즉 농노들은 자기의 점심을 가지고 가서 령주들을 위하여 성을 쌓는 일, 집 짓기, 길닦이 등 부역 로동을 도맡아 하였다. 심지어는 령주들의 집에서 혼사가 있다든지 또는 제사 등 이러저러한 힘든 일이 생길 때에는 아무리 바쁜 때에도 만사를 제쳐 놓고 일을 해 주어야 하였다.

우리 나라 농민들도 옛날이나 8. 15 해방 전까지만 하여도 이와 같은 가혹한 착취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뿐만 아니라 봉건 령주들은 제분소나 야장'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노들은 여기에서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일을 해 줄 의무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농노들은 자기의 곡물을 반드시 령주의 제분소에서 찧어야 하였으며 만일 다른 제분소에서 찧을 때에는 령주들은 그들에게서 벌금을 받거나 또는 곡물과 마차를 몰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봉건 제도하에서의 농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은 《초야권》이라는 령주의 특권이였다. 이것은 농노의 딸이 결혼할 때에는 반드시 첫날 밤을 령주와 같이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풍습이 구라파 봉건 국가에서는 오래'동안 계속되였었다.

또한 봉건 제도 하에서는 자식 없는 농노가 죽으면 그의 재산을 령주가 차지하는 것이 법으로 되여 있었다.

이와 같이 봉건 사회 전 기간을 통하여 농노들은 봉건 령주들에게 예속되여 2중 3중의 착취를 당하였다.

과학 지식

21세기의 이모저모

달나라 도시를 거닐면서

이제 5~10년후이면 달나라에로의 려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때 달나라로 가는 지구의 손님들에게 필요한 물자들은 지구에서 보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 왜냐 하면 지구에서 달나라에 빵 한덩어리를 보내려면 그 빵의 크기와 같은 금덩어리의 값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천문학계의 첫째가는 과업은 달나라에서 자급 자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이다. 쏘련 천문 학자 엔. 아. 와르와로브의 말에 의하면 그 과업이 21세기 초엽에 이르러선 해결되리라고 한다. 이때에 가면 우리는 달나라의 도시를 거닐면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신기한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달나라에 와 있다. 특별한 구조를 가진 자동차는 우리를 싣고 화강암의 벼랑에 난 좁은 신작로를 따라 달나라의 도시에로 달려 간다. 도시의 머리우에는 유리 지붕이 씌워 있다. 드디여 자동차는 암석을 뚫은 좁다란 턴넬안에 들어 선다. 턴넬 저 쪽에는 알미늄으로 만든 대문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공중 관문(關門)이다.

우리가 방금 들어 서려고 하는 도시의 기압은 지구상의 기압보다 3분지1이나 더 낮다. 그러나 기압이 이렇게 낮지만 달나라는 지구상의 대기보다 산소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는 아무렇지도 않다. 문제는 공기가 밖으로 새여나가지 못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도시의 머리우엔 유리 지붕이 씌워 있고 도시로부터 뻗은 신작로에는 문이 닫혀 있는 것이다.

어느덧 우리의 자동차는 두번째 알미늄 대문앞에 다닫은다. 우리는 도시로 들어 간다. 이제는 자동차에서 내려 녹녹한 공기를 들여 마실 수 있다.

우리는 꽃이 만발한 관목숲들이며 실과 나무들의 옆을 거닌다.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지구의 산물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의 하나 하나를 쉽게 알아 낼 수 없다. 인력이 약한 달나라에서는 지구의 빨간 무가 야자수의 열매만큼 크게 자라며 파는 높이가 10메터나 되게 자란다.

우리의 앞에는 2중문이 달린 유리간벽이 보이는데 우리는 이런 간벽들을 매 800~1,000메터마다에서 만나게 된다. 이 간벽들은 대양을 항행하는 기선의 방수(防水) 간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큰 류성이 달나라 도시의 유리 지붕을 뚫는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이다.

그러면 달나라 도시의 알미늄, 유리, 프라스트마쓰, 물,흙 같은 것은 지구에서 가져 왔는가? 아니다. 알미늄은 달나라에서 채굴하여 달나라의 공장에서 만들며 유리, 프라스트마쓰 같은 것도 역시 달나라 공장에서 만든다. 물은 달나라의 깊은 지하에서 끌어 올리는데 이것은 달나라의 재배지에 습기를 보장해 준다. 달나라의 도시는 자급 자족만 하지 않고 수출도 하는데 지구에 보내기 위한 합성유도 만든다.

더 오래 살게 된다

지금 원자 물리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인류가 여러 세기를 두고 숙망하여 온 자기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문제는 차츰 해결되여 가고 있다.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세상에선 세균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그 어떤 중요한 전염병도 거의다 완전히 극복하게 되였다. 이런 결과 인간의 한 세대의 수명은 20년이나 연장되였다.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암종의 본질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고통으로 되고 있는 이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생겨날 것이다.

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데 얼마 동안이나 걸리겠는가를 벌써 내다 보고 있다. 즉 가장 권위있는 전문가들조차 20년이상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이 예측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0년이내에 인류는 암종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의 수명은 길어질 것이다.

이외에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문제에서 또 하나의 확고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생애의 3분지 1 동안을 잠자는데 보낸다. 우리가 잠잔다는 것은 낮에 시달림을 받은 신경 세포들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기 때문에 가령 신경 세포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그 본질을 알아내 가지고 그것의 작용을 없이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 곧 우리는 덜 자고서도 피곤을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좀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잠을 덜 자게 만들 수 있다.

가령 잠잘 때 우리의 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경 세포의 피로의 회복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거 진동 형태가 발명된다면 우리는 보통 1일 수면 시간인 8시간을 그보다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은 곧 인간의 수명을 20년간 연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의 비밀은 드러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제는 지구상에 더는 개척할 만한 새로운 땅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는 말이다. 남극은 제쳐 놓고라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는 아직도 처녀지들이 많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우리 지구의 륙지는 지구 표면의 30%도 못되며 그의 70% 이상은 바다에 덮여 있다.

그런데 바다에는 《로모노쏘브》 산맥과 같은 산맥들이 수다히 숨어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 표면의 3분의 1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아직 지구의 구조에 관한 전반적 법칙에 대해서는 모른다.

대양 밑바닥에 관한 상세한 비밀을 알아내는 것은 다음 세기의 학자들 앞에 나서는 커다란 과업이다. 지질학자들 앞에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업이 나서고 있다.

현재 지추기(地推機)의 정이 도달한 최대의 지심은 5—6천메터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구의 중심이 별과 비슷한 온도로 끓고 있는지, 혹은 2천500도 정도의 비교적 높지 않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주에서 가장 낮은 랭도(冷度)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아직 모르고 있다. 쏘련 과학원 원사 데. 이. 쉐드바꼬브의 학설에 의하면 20—30키로메터의 지심이 다음 세기에 가서 탐구되리라고 한다.



※달나라 도시에 도착하였다.

자연도 변한다

다음 세기에 가면 지리 학자들은 개별적 지방들과 지역들 나아가서는 지구의 전 대륙들을 변경시키는 일에 종사할 것이다. 바다의 난류(暖流)에 관한 연구는 오늘에 있어서도 난류의 방향을 얼마간 바꾼다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예견하게 하고 있다.

미래의 사회는 비단 해류 뿐만 아니라 기류(氣流)의 방향도 변경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막 지대에도 일정한 습기 있는 기후가 조성될 것이며 씨비리의 영원한 얼음도 녹아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륙 중심부분들의 지나친 대륙성 기후도 완화될 것이다.

정신 로동의 혁명

두 개의 미지수(未知數)를 가진 방정식(方程式)을 풀자 해도 2—3분이 걸리는데 200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된 어떤 수학 문제를 풀자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사람의 머리로 이런 문제를 풀자면 적어도 1—2년동안을 날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계산해도 잘 안될 것이다. 허나 오늘의 전자 계산기는 불과 1시간내에 그것을 풀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전자 계산기의 계산 속도도 내부핵(內部核)연구에 종사하는 수학가들과 물리 학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오늘 과학 앞에는 그런 기계들의 작업 속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날마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국제 회의에서 누가 어느 나라 말로 연설하든지간에 매개 청취자는 사무용 책상보다 별로 크지 않은 번역 기계의 도움에 의하여 연설의 내용을 즉시 리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번역 기계에 대하여서는 이미 우리 시대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공상할 수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전자 계산기들은 인간의 로동을 경감 촉진시키며 인간의 두뇌를 단조로운 기계적 작업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계가 아무리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 해도 그것은 인간 자체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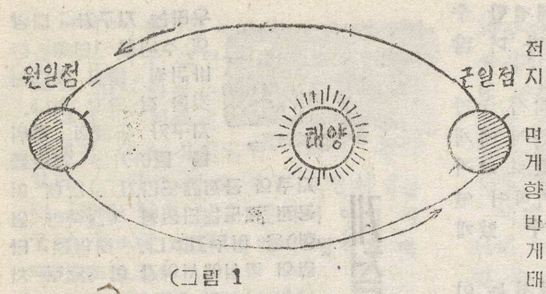
계절은 왜 바뀌는가

우리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아가는 경로를 지구의 공전궤도라고 하는데 이 공전 궤도는타원형 (길죽한 원형)을 이루고있다. 태양은 타원의 중심에서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타원의 초점이라 는곳에 있다. (그림1)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태양에 가까와질 때도 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구 상에서의 계절의 변화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즉 지구가 태양에 가까와졌을 때가 여름이 되고 멀어졌을 때가 겨울이 된다고 생각한다. 허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계절의 변화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변화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가 태양에 제일 가까와졌을 때 즉 지구가 근일점을 지나갈 때 (매년 1월 2—5일)에는 지구상의 모든 곳은 여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구가 태양으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지구가 원일점을 지나 갈 때 (매년 7월 1—4일)에는 지구상의 모든 곳은 겨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이 지구 전체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계절의 변화는 항상 다른 것이다. 가령 례를 들어 지구 북반구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여름이 되였는데 지구 남반구의 오쓰트랄리아 (호주)에서는 겨울이고 우리 나라에서 겨울이 시작될 때에는 거기에서는 여름이 시작된다.

또한 매년 1월 초순에는 지구가 태양에 가장 가까와지는데 이 때 지구 북반구에서는 겨울이 되며 태양에서 지구가 가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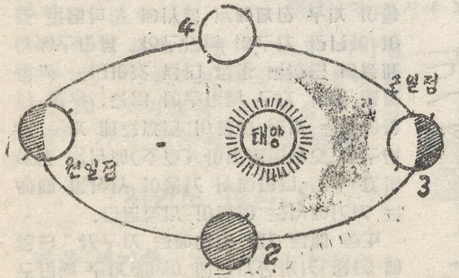
장 멀리 떨어지는 7월 초순에는 여름이 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계절의 변화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계절이 바뀌는가?

지구는 자기의 자전축(自轉軸)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다. 그런데 자기의 자전축 주위를 자전하는 매개 물체는 항상 이 축의 방향을 보존하려고 하며 이 방향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외부적 원인들에 대하여 저항한다. 우리 지구도 역시 이와 같이 즉 자전축의 방향이 항상 일정하게 자전하고 있다.

자전축 주위에서 구(球)의 자전은 각이 할수 있다. 즉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수직일 수도 있고 평행일 수도 있고 또 경사질 수도 있다. 우리 지구에 있어서는 지구 자전축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경사지고 있다. 이 경사는 항상 일정하다. 지구 자전축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에 항상 서로 평행이 된다. (그림 2)



(그림 2)

관측에 의하면 지구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에 대하여 66도33부 경사지고 있다.

해마다 지구는 6월 22일경이 되면 1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북극은 태양쪽을 향하게 되며 1년을 통하여 지구 북반구가 가장 많이 태양 쪽을 향하게 되며 지구 남반구가 가장 적게 태양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림3) 이 때 태양 광선은 가장 작은 경사를 가지고 북반구를 비치게 되는데 이 때 태양은 지구 북반구를 심히 가열하게 된다.

지구 자전시에 지구 적도상의 점들을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모든 점들은 지구의 일조 반구(日照 半球)와 암흑 반구에 머물어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

그림 3과 같은 위치에서는 지구가 자전할 때에 북반구의 모든 점들은 일조 반구에 머물어 있는 시간이 암흑 반구에 머물어 있는 시간보다 길어서 낮이 밤보다 길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북쪽으로 갈수록 더욱 심하며 북위 66도33부 이북에 있는 지점들은 지구의 자전시에 전혀 암흑 반구를 지나가지 않게 되므로 밤은 없고 낮만이 있게 된다. 지구 남반구에서는 이와 정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즉 낮이 밤보다 짧아지며 남위 66도33부 이남에 있는 지점들은 밤만이 있고 낮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매년 6월 22일경에 지구 북반구에서는 1년을 통하여 태양 광선이 가장 작은 경사각을 가지고 비치게 되며 낮이 가장 길어지며 밤은 가장 짧아진다. 이 때를 하지라고 한다. 이 때에 태양으로부터 지구 북반구가 받는 열량은 가장 많아져서 지구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되고 이와 반대로 지구 남반구에서는 가장 적은 열량을 받아 겨울이 된다.

하지가 지난 다음부터 지구의 남극은 점차 태양쪽으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북반구에서는 점차로 낮이 짧아지며 밤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태양에서 받는 열량도 점차로 감소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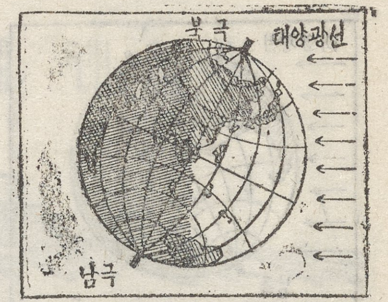
리하여 매년 9월 23일 경에는 지구 자전축은 지구의 일조 반구와 암흑 반구의 경계를 지나 가게 된다. (그림 4) 이 때 지구상의 모든 점들은 지구 자전시에 지구의 일조 반구와 암흑 반구에 머물어 있는 시간이 꼭 같아진다. 즉 지구상의 모든 점들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며 지구의 량 반구는 태양 광선에 대하여 대칭으로 향하게 된다. 이때를 추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도 같게 되여 지구 북반구에서는 가을이 되며 지구 남반구에서는 봄이 된다.

추분이 지나면 지구 북반구에서 낮은 더욱 짧아지며 밤은 더 길어진다.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량은 더욱 적어진다. 마침내 12월 22일 (매년) 경에 가서는 지구가 그림 2의 3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남극은 태양쪽으로 향하게 되며 1년을 통하여 북반구가 가장 적게 태양쪽을 향하게 되며 남반구는 이와 반대로 된다. (그림 5) 그러므로 북반구에서는 가장 큰 경사각을 가지고 태양 광천이 비치게 되므로 낮이 가장 짧아지며 밤은 가장 길어진다. 이 때를 동지라 한다. 또한 이 때 태양으로부터 북반구가 받는 열량은 가장 적어져서 겨울이 되고 남반구에서는 가장 많은 열량을 받아 여름이 된다.

동지가 지난 다음부터 북극은 점차 태양 쪽을 향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북반구에서는 점차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남반구에서는 이와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이리하여 매년 3월 21일 경이 되면 지구가 추분 때와 꼭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는 또다시 낮과 밤의 길이가 같게 되며 남북 반구가 태양 광선에 대칭으로 향하게 된다. 이 때를 춘분이라고 한다. 또한 남북반구는 태양으로부터 같은 열량을 받게 되여 북반구에서는 봄이 되고 남반구에서는 가을이 된다.

춘분이 지나면 지구 북반구에서는 낮이 점차 길어지며 밤은 짧아진다. 또한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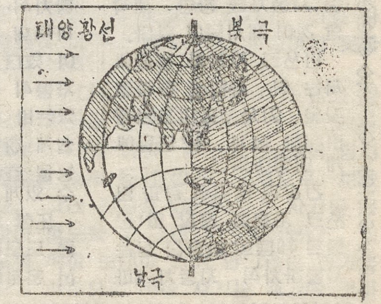
태양 광선에 대한 경사도 적어져서 더 많은 열량을 받게 된다. 마침내 하지에 이르러서는 다시금 낮이 가장 길어지며 밤은 가장 짧아진다. 태양으로부터 지구 북반구가 받는 열량도 가장 많아진다. 이리하여 또다시 여름이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구상에서의 계절의 변화는 지구 자전축이 태양의 공전 궤도면에 대한 경사로써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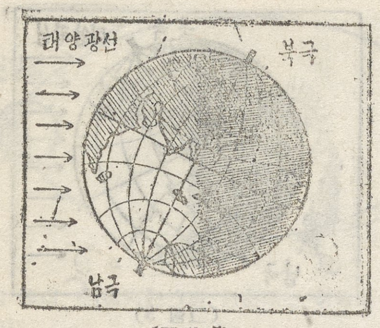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고찰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에 대하여 전혀 의의가 없겠는가?

이미 우에서 본 바와 같이 1월 초에는 7월 초에 비하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3% 가량 적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전체로서 받는 열량은 1월에는 7월에 비하여 약 6%많다. (이것은 수열량은 거리의 2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서의 여름은 북반구에서의 여름보다 더 덥고 겨울은 그만큼 더 추워진다.

이와 같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의



(그림 4)



(그림 5)

변화는 계절의 변화에 대하여 2차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는 하지 때가 가장 덥지 않고 하지가 지나서 7월 말이나 8월초순에 가서야 더우며 또 동지 때에 가장 춥지 않고 1월 초순 경이 되어야 추워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하지 때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많은 열량은 받는데 그 열량이 지구 표면에서 방출하는 열량보다 많기 때문이다. 즉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매일같이 열을 받고 있는 동시에 한편 지구 표면으로는 계속 열을 방출하고 있다. 하지가 지난 다음부터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이 줄어 들기 시작하나 그래도 방출하는 열량보다 많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지구가 받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이 같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방출하는 열량이 받는 열량보다 더 많아진다. 이리하여 지구가 받는 열량과 방출하는 열량이 같아질 때에 가장 더워진다. 이와 꼭 같은 리유에 의하여 동지 때에 가장 추워지지 않고 동지를 얼마간 지난 후에야 가장 추워지는 것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기후의 온난은 천문학적으로 태양에서 받는 열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한 것인데 실지에 있어서 지구상의 한 점에 있어서의 기후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 이외에 먼 지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해류 등에 의하여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더워지는 시기와 추워지는 시기는 장소에 따라 또 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전 기 서

40톤의 화물을 싣는 자동차

제 6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쏘련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의 지시문에는 가까운 시일내에 40—5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자동차를 창안 제작할 것이 제시되어 있다.

민쓰크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 과업을 해결할 것을 기사 깔믜꼬브를 비롯한 설계 일'군들에게 위임하였다.

긴장된 로력의 결과 민쓰크 자동차 공장 일'군들은 40톤의 화물을 싣는 자동하차식 자동차 《마즈—530》형을 조립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마즈—530》형 자동하차식 자동차에는 450마력의 발동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자동차에는 자동식 변속장치가 달려 있는바 이는 운전을 손쉽게 하며 발동기의 성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운전사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 운전대는 보온 장치와 통풍 장치가 잘 되어 있다.

한도르에는 수력조절 장치가 달려 있기 때문에 운전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겨울에는 적재함 밑에 달려 있는 배기가스를 리용하는 특별한 보온 장치에 의하여 적재함도 온기를 보장할수 있다.

이 새로운 자동차는 광산부문에서 특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의지에 대하여



…공청원 아르뚜르와 보리쓰는 한 침대차에 앉아 황무지 개간에로 떠났다. 영리하고 쾌활한 아르뚜르는 첫날부터 승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그는 줄곧 웃음거리 이야기만 퍼뜨려 놓았다. 그와 반대로 보리쓰는 덤덤히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르뚜르는 즉시 우울해하는 자기 동반자를 관심하여 연어알 반찬과 집에서 구운 과자를 권하는 것이였다.

《얘, 넌 왜 그리 울적해 하냐?》 아르뚜르가 물었다. 《우린 새로운 땅을 개간하러 가지 않니, 우리가 어디에 가나 조국은 공훈을 세울 것을 기다린다! 락심해선 안돼, 얘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니? 말해 봐 응!》

불안한 기색이 없이 나지막하게 말한 아르뚜르의 마지막 말은 보리쓰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너도 알지 않니》보리쓰가 대답하였다. 《나 한테는 아무런 특기도 없다. 그래서 황무지에 가게 되면 초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는 곳은 경승지가 아니니까. 가뜩이나 나는 늙으신 어머니를 모쓰크바에 두고 온다. 그이는 지금 홀로 계시며 그다지 건강하지도 못하다. 그러니 머리에서 좀체 생각이 떠나지 않는구나.》

× ×

두 공청원은 국영 곡물 농장에 이르렀다. 아르뚜르의 들끓던 정서는 하루가 지나자 그만 우울해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그도 새로운 다른 사람들과 꼭 같은 보통 로동자로 일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등기원 사업을 쉽사리 얻어 내였다. 사업은 그다지 번중하지 않았을 망정 아르뚜르의 정서는 하루 하루 떨어져 갔다. 황무지의 일상 생활은 그를 진저리나게 하였다.그는 모쓰크바의 친구들과, 쾌적하고 눈부신 자기의 방과, 아침이면 라지오 체조를 하던 일을 슬프게 회상하였다.

그러나 이곳 황무지에서는 세수대야에 손수 물을 떠와야 했으며 더운 물을 얻을려면 멀리 가야 했다. 또한 자기의 침대를 정돈해야 하고 일주일에 한번식 숙사 당번이 되여 소제해야 한다. 그는 천막 속의 생활은 죄를 받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느꼈으며 그날 그날 자기가 자기를 관심해야 하는 그런 생활에 관습될 수 없었다.이 모든 것이 그의 의기를 소침하게 하였다. 초원은 어덴가 몽롱하고 쓸쓸하며 노래 부르듯 그 처럼 광대 무변하지 못함을 느꼈다. 이곳 사람들은 너무나 무례하며 친절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밤마다 그는 오래도록 자지 않고 집으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에 몰두하였다. 그래서 그는 끝내 집으로 눈물이 엉킨 편지를 써서 등기 항공 우편으로 보냈다. 그는 편지에 《아범》에게 자기를 구하는 전보를 쳐 달라고 애걸하였다. 되도록 속히 보내야 하며 안그러면 번민과 고된 로동으로 하여 자기는 죽고말 것이라고 하였다. 일주일만에 아르뚜르는



급전을 받았다. 《어머니 병세 위급, 속히 오라, 우뜨료빈 의사 진단》

동무들은 아르뚜르가 전보를 받은 후부터 그를 매우 동정했다. 동무들은 서로 다투어 아르뚜르를 위안하고 되도록 그의 기분을 상쾌히 하려고 애쓰면서 속히 떠날 것을 조마조마해 하였다. 동지들의 과분한 동정을 받은 아르뚜르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여 얼굴이 홍당무로 되였다.

(참 무서워!)아르뚜르가 생각하였다.

(난 비겁하게 황무지에서 도망치려는구나, 그래 탈주자로 되여 꽁무니 빼다니…수치야, 수치!…)

하나, 아르뚜르의 내심적 투쟁은 순간적일 뿐이고 인차 경쾌한 모쓰크바의 생활이 마음 가운데서 우세를 차지했다.

× ×

보리쓰의 운명은 아르뚜르와 전혀 상응되지 않는다. 최근 황무지에서 보내온 그의 편지를 보자!

…친애하는 어머니! 여태 나는 어머니에게 수두룩한 편지를 보냈지만 실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병석에 계시는 어머니 심정만 불안케 할 뿐이지요. 이 1 년 반을 어머니에게 알린 그 처럼 순리롭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성적을 따낸 오늘은 내가 겪은 모든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보통 로동자로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일이 끝나면 집단 처럼 굳굳한 몸으로 침대에 넘어져서는 의복도 벗지 못한채 아침까지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하나 나의 리상은 마침내 실현되였습니다. 나는 뜨락또르 운전수 강습소에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진 곤난에 봉착했어요. 나의 실습 성적은 대번에 《최우등》이였지만 리론 성적은 락후했어요. 그래서 리론 학습에 정력을 다해 밤 늦게까지 학습했지요. 눈이 감겨 들 때면 뜰악에 뛰여 나가 찬물통에 골을 담구었다가 다시 공부를 계속했지요. 이렇게 하여 드디여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어머니 당신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위해 내가 얼마마한 로동을 하였는지를!

그리하여 나는 뜨락또르 운전수로 되였습니다. 우리반 부 반장 워론쪼브는 매우 엄격한 사람이야요.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다 못지 않게 일하면서도 꾸지람은 더 듣지요. 자그마한 과실만 있어도 눈이 빠지게 욕해요. 그가 조롱쪼로 나를 《모쓰크바 공작》이니 그저 《모쓰크바 친구》라고 부를 때면 나는 그에게 버럭 성을 냈어요. 일을 하면 할 수록 과중한 부담을 주기에 숨쉴 사이도 없을 지경이였지요. 그래서 나는 그의 욕설을 더는 참을 수 없어 그에게 《당신은 왜 남들보다 잔소리를 더 합니까?》하고 말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모쓰크바 사람이네. 게다가 공청원이네. 그래 자네하구 잔소리를 안하구 누구하구 하겠나?》라고. 《그런데 욕은 왜 해요?》

《더 잘 일하게, 안 욕할테니》

이 일 때문에 나는 오래'동안 고민하다가 자기를 걷잡고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으려고 힘껏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더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칭찬도 해 주지 않더군요.

《자네 그리 나쁘지 않게 일 하네》 그가 한 말이였습니다. 《하나 이것은 매개 뜨락또르 운전사의 의무네. 자네는 일한 대신에 돈을 받으니까, 그 어떤 공적으로 칠 수도 없네. 이 사람 <모쓰크바 공작> 알겠나, 자네는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몇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네》

이 말은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나는 그이가 나를 만만하게 보고 아무 롱담이나 망탕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격분한 나는 힘을 내여 모두가 놀랄 지경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이 만은 나를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가타부타 아무 말도 없지 않겠어요. 한번은 당원 확대 회의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들이 발언하는 것을 듣고 있노라니 뜻밖에 워론쪼브가 무대에 올라 갔어요. 그는 우리 국영 농장의 우수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다가 홀연 나의 말을 꺼내는 걸요. 이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는데 그는 온군 십분 동안을 나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지나치게 과장해 말하기를—보리쓰는 우리 국영 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알따이 변강에서 우수한 뜨락또르 운전수라는 군요. 참 말을 어데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회의 끝에 나한테 다가 와서 그 큰 손으로 내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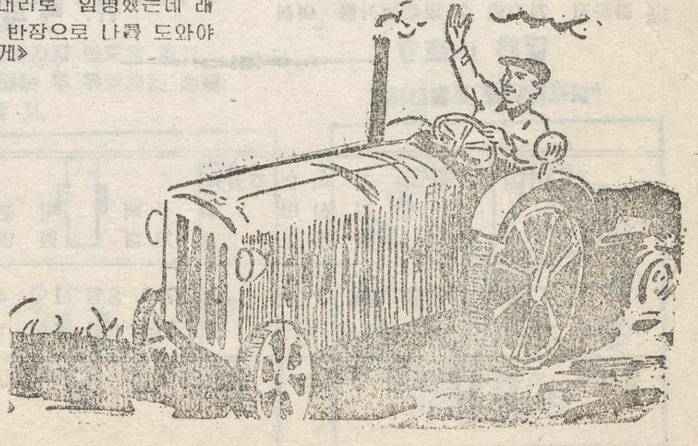
《이 사람 모쓰크바 친구, 어떤가 이제 좋은 비난을 받았으니? 헌데 이제 부터 꾸지람을 더 들어야겠네. 우리 작업 반장이 2 년 동안 학습하러 가게 됐네, 그래서 나를 그의 대리로 임명했는데 래일부터 자네가 부 반장으로 나를 도와야 겠네 좀더 주의하게》

나는 지금 그와 함께 화목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이에 간혹 언쟁도 있어요. 어찌 언쟁 이 없을 수 있겠어요. 내가 그를 반박할 때면 그는 지어 만족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간 나의 경과는 대략 이러합니다. 이 1년 반 동안에 많은 곤난을 겪었지만 적지 않은 성적을 따냈습니다. 인제는 나의 자신심을 좌절시킬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자신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제출하였습니다. 1년후에 기계사 학교에 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이곳에 모셔 오겠어요. 이것은 나의 계획입니다. 나는 성심성의로 이 임무를 수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겠습니다. 나는 이곳 황무지에서 이런 단련을 받게 되는 것을 자못 만족하게 느낍니다. 지금 나는 한때는 나의 《적》이 였고 인제는 벗인 워론쪼브처럼 견결하고 완강해졌어요….

이 사실 가운데서 성격은 여하히 형성되며 의지는 여하히 단련되며 견강해 지는가를 볼수 있다.

그러면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누가 아르뚜르와 같이 《고요한 물'굽이》에서 살려고만 한다면 극히 잘못이다. 사람마다 자기의 의지를 견강하게 양성할 수 있다. 사람은 날때부터 고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의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호상 관계에서, 로동과 학습중에서 발전되며 형성된다.

의지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활이 수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사람들이 자기로 자기의 의지를 배양하는데 있어서 매개 경우, 매개 성격에 들어 맞는 그 어떤 완비하고 구체적인 처방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의지를 단련하게 된다. 우선 각기 부동하게 의지를 단련하게 된다. 우선 자기의 약점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해야 하며 여제든지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변호하지 말아야 한다. 결심한 그날부터 비록 반보를 내 디디더라도 앞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걸음으로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걸음을 나날이 쉼 없이 걸어야 한다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자그마한 승리라도 자기의 마음을 타승한 승리라면 그 승리는 자기를 더 유력하게 하며 새로운 더 큰 승리를 준비하게 한다.

한 사람의 의지를 우리는 그가 이러저러한 결심을 내릴때 어떻게 내심적인 사상 투쟁을 하는가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 투쟁은 때로는 아주 길게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러저러한 돌변적인 상상이 련해련방 떠오르고 사라지고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의 사상 투쟁의 기간은 매우 지루하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며 자기가 이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겠는가를 의심하는 데서 오래 동안 동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리상을 공중 루각을 쌓듯 높이 올려 세우며, 자기의 존재를 지나치게 높이 올려 세우며, 자기의 존재를 너무 높이 평가하며, 환경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다. 그러나 생활의 현실에 부닥치기만 하면 안절 부절하며 무기력해지고 만다. 이러한 사람들은 곤난을 무서워 하며 곤난에 굴복된다. 그러나 의지가 견강한 사람은 복잡한 환경일 수록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도 정열적으로 행동한다. 그는 자기의 힘과 객관 조건의 가능성을 랭정하게 판단하고 재빨리 정밀하게 옳바른 결론을 짓는다. 그는 아무때건 도중에서 망서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되였을 때라야만이 의지를 배양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만일 누가 일상 생활에서 견강하고 단호히 행동하지 못한다면, 누가 자기를 미래의 영웅으로 자칭하고 자기의 인내력과 완강한 정신을 《아낀다》면 그는 자그마한 일에서도 창발성과 자아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는 진정한, 거대한 사업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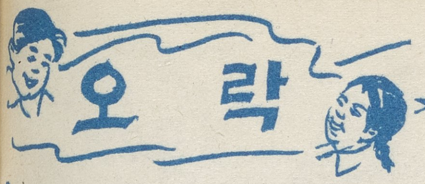
—《몰로도이꼼무니쓰트》1956년7호에서—

아. 꼬노발로브
유. 뻬뜨로브

편집 위원회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 생활 제 8 호 1957년 8월 1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8월 7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 원) ㄱ—40570 50,000부



오 락

널뛰기 경주 (실외 오락)

1. 유희 조직.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편으로 나눈다.

② 널판지(길이 3~3.5메터, 너비 40~45센치 메터, 두께 3~4센치메터) 2매와 가마니 6매를 준비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①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② 출발선을 향하여 유희자들을 2렬 종대로 정렬시킨다

3. 유희 방법.

①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각편의 선두에 선 두 유희자는 손을 잡고 널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

② 널 있는 곳까지 간 유희자들은 각각 다섯번씩 뛴다.

③ 다섯번씩 뛴 유희자들은 널에서 내려 귀환점으로 돌아와 다시 다섯번 널을 뛰고 출발선으로 돌아온다.

④ 출발선에 도착한 유희자들은 다음 유희자와 손'바닥 치기로 인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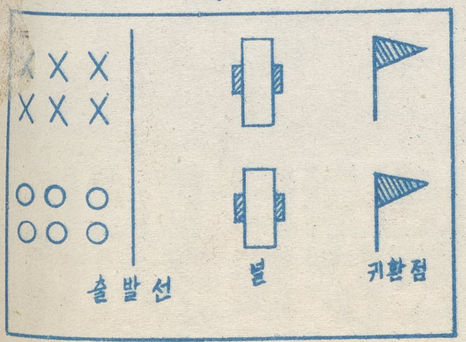
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빨리 끝난 편이 승리한다.

4. 주의할 점.

① 계속하여 다섯번을 뛰지 못하면 다시 뛰도록 할 것.

② 널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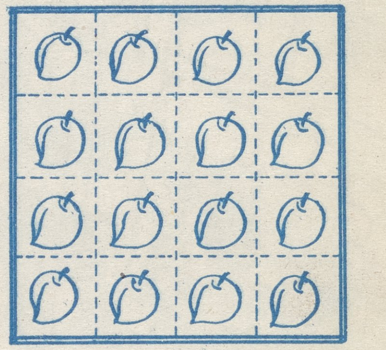
③ 땅 우를 뛸 때는 두 유희자는 손을 잡고 뛰도록 할 것.



어떻게 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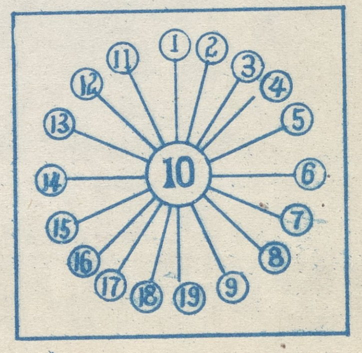
(실내 오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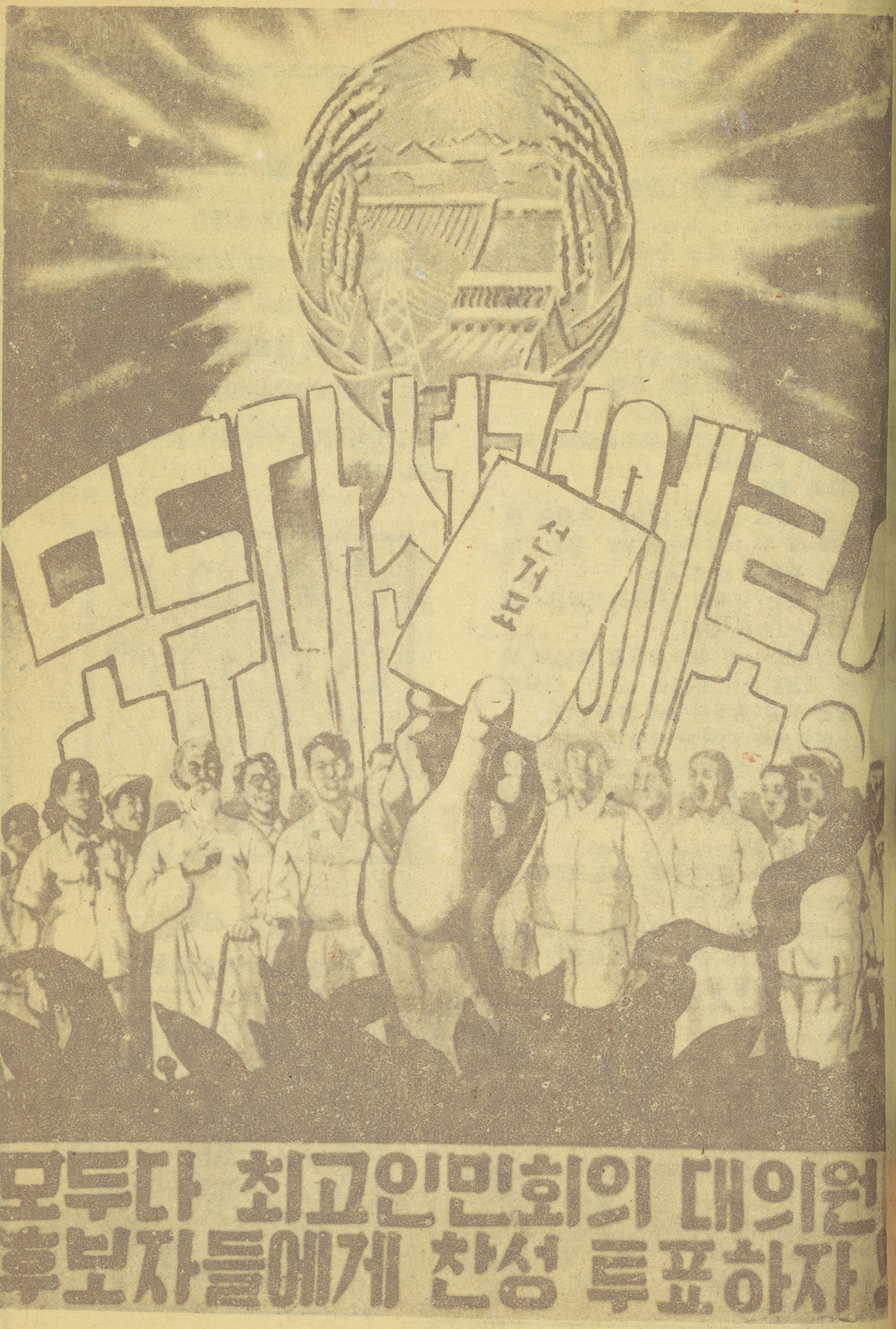
어떠한 물건이 든지 16개를 가지고(종이 조각, 단추, 살구 등) 그림과 같이 세로, 가로 4렬로 배렬하라. 다음으로 그중 6개를 떼여 내되 떼고난 남어지가 세로 보나 가로 보나 우수(쌍이 맞는 수)가 되도록 하라.



6호의 해답

"하나에서 열아홉까지"




모두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자!